

한반도 평화통일 청년 세미나

Seminar on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남북한 그리고 세계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Peaceful Korean Reunification with Young Adults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PSCORE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행정안전부

주최 | 사)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후원 | 행정안전부

Hosted by PSCORE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Sponsored by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e Seminar will be held online due to COVID-19. You may find more information in the link below.

<http://www.pscore.org/onlineseminar2020>

목 차

인사말 | Greetings

성통만사 이사장 김태훈	4
The President of PSCORE, Kim Tae-Hoon	

세션 1. 기조연설 | Session 1. Keynote Speech

국제적으로 본 한반도 평화와 통일	9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 오 준 | Oh Joon

(現)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前) 주 UN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Former Korean Ambassador to the UN

세션 2. 국가별 발표 | Session 2. Presentations

65

남북한 그리고 세계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Peaceful Korean reunification created by North, South
Korean and world youth

발표 1	북한 문제 및 통일과 관련한 남한 청년 세대의 인식 그리고	67
한국	이들의 관심 제고 방안	
South Korea	The perception of young South Koreans on North Korean issues and on reunification, as well as how to spark their interest.	

– 황세영 (고려대학교)
Hwang, Seyoung (Korea University)

발표 2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통일을 바라보려는 노력	89
북한 (탈북민)	Reflect the efforts to view reun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Koreans	
North Korea	- 김이슬 Kim, Yiseul	
발표 3	1년(혹은 70년)이 만들 수 있는 차이	103
미국	The Difference a Year (or Seventy) Can Make	
USA	- Meghan McAllister (The College of New Jersey)	
발표 4	- 유효연 LIUXIAORAN (이화여자대학교)	117
중국		
China		
발표 5	- Nadezhda Kim (연세대학교)	131
러시아		
Russia		
발표 6	- 스즈 타테노 舘野涼 (고려대학교)	149
일본		
Japan		
발표 7	왜 독일의 통일을 한국의 통일과 비교할 수 없는가?	169
독일	Why the German reunification cannot be compared to Korean reunification	
Germany	- Priska Kohnen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인사말

안녕하세요,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세미나를 조직하고 운영한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김태훈 이사장입니다.

2020년의 한반도는 남북한 대화의 경색속에 6.12 싱가포르 선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PSCORE는 세계의 청년들을 한자리에 모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개최되었던 한반도 주변 6개국과 독일이 포함된 청년들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그 사이에 변화된 국제환경의 이야기를 모아 금년도에는 온라인에서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은 국제적인 지지 아래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비록 통일이 당장 다가오지 않더라도, 그리고 급속한 통일보다는 서로를 알아가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며 점진적인 통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늘어나는 현재에 있어서도, 우리는 통일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 시민사회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주변국 청년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통일 시대를 함께 살아갈 청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미래 통일세대의 주역으로써 본 세미나의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사)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 김태훈

Welcome to our webinar.

My name is Kim, Tae-Hoon and I am grateful to have organized this webinar as the president of PSCORE.

Many are worried that the current strai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might put both countries in the situation pre-2018 Singapore Summit.

That being said, PSCORE gathered youth all over the world to hold a meeting about ways to promote peace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orld. In 2018, a seminar participated by young people from Germany and six countr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was held. This year, we are holding a webinar about international changes that took place during the past two years.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possible only under global support.

Reunification can't be achieved overnight, and many supports that a progressive unification through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s better than rushed. Yet, we should not stop striving for reunification.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hold a significant meaning in global peace and achieving a better global society.

It is a rare opportunity to listen to opinions of youth from countr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it will be very meaningful to learn youth's opinions on reunification as they will be the leading members of the age of unification. Please listen to the story of the future leaders of the age of unification in this seminar.

October, 2020

PSCORE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Kim, Tae-Hoon | President

세션 1 | Session 1

기조연설 | Keynote speech



국제적으로 본 한반도 평화와 통일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오 준 | Oh Joon

(現)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前) 주 UN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Former Korean Ambassador to the UN

국제적으로 본 한반도 평화와 통일

오준 경희대 교수 (전 유엔대사)

안녕하세요, 한반도 통일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현 경희대 교수, 전 유엔주재 한국대사 오준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75년 전 한반도 분단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모두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어느 정도 배경지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본 강연은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본 원고는 영어 강연의 한글 번역본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역사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에 있으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에 보듯이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삼면은 바다에 맞닿아 있습니다. 한반도는 1945년에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945년엔 제 2차 세계대전이 종전 되었습니다. 연합국이었던 미국과 소련 (현 러시아)는 일본에 맞서 싸웠죠. 결국 1945년 일본은 미국과 소련에 패배하고, 한반도는 일제의 36년 압제에서 풀려납니다.

한반도



이후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의 분할을 이끌게 됩니다.

38선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한반도는 분단국가가 되었습니다. 한반도 분단은 강대국의 의도적인 영토 분할이라기보다 전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45 -1950 남북한의 독립



1945

한반도 독립과 남북 분단



1948

- 유엔 감시하의 선거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 총회 결의 195 (II)로 한국 정부 승인
-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선포

4

38선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남쪽에는 대한민국(남한)이 수립되었습니다. 남한 정부는 유엔이 주관하는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북한은 유엔의 개입을 피하고자 정부를 독자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50년에 북한은 남한을 침공하는데, 이는 공산주의 통치하에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1945년 세계대전 종전 이후로 처음으로 발발한 대전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러므로 집단안보개념을 표방하던 유엔은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1950-53 한국전쟁



1950

유엔 안보리는 북한 침략에 맞서 유엔사령부
설치와 유엔기 사용 허가를 결의(1950. 7. 7
안보리 결의 84)

5

유엔안보리는 즉시 회의를 개최하였고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부대가 바로 유엔군 사령부이며, 60개국이 지원군을 파병했습니다. 한국전쟁은 3년간 계속되었으며, 1953년에 휴전협정으로 종전 되었습니다. 전쟁을 완전히 종식할 공식적인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남북한은 휴전협정 하에 전쟁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1954-1975 남북한의 외교경쟁



1954-1975

- 유엔총회의 “한반도 문제 (Korean Question)” 의제 하에서 UNCURK 연례 보고서 논의
- 유엔총회는 매년 한국 우방국들이 제출한 결의안 채택
- 북한 우방국들도 1961년부터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1974년까지는 계속 부결



휴전 선언 후 한반도 문제는 유엔의 의제로 상정되어 매년 유엔 총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남북한의 동맹국들은 각 나라의 정통성에 대한 논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초기에는 남한의 동맹국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보통 남한 동맹국이 제출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북한 동맹국의 결의안은 항상 무산되었습니다.

1954-1975 남북한의 외교경쟁

1975



남북한의 우방국들이 각각 제출한 2개의 상호 모순되는 결의안이 모두 채택되자, 유엔 총회는 더 이상의 한반도 문제 토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의제에서 삭제

7

그러나 1975년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동맹국들이 제안한 결의안 초안이 모두 통과된 것 입니다. 이 두 가지 결의안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엉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유엔 회원국들은 대립을 피하고 싶었는지 결국엔 상충되는 두 개의 결의들이 모두 채택되었습니다. 이로써 유엔 총회와 회원국들은 더 이상 한국문제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고, 1975년 이후로 한반도 문제는 유엔의 의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1976-91 남북한의 유엔 가입 경쟁



- 한국은 유엔가입을 주요 목표로 삼고, 외교노력 계속
- 북한은 국제기구(WHO, IAEA 등)에는 가입하였으나, 유엔 가입은 통일 후로 미루어야 한다는 논리로 소련과 중국의 거부권을 활용, 우리의 유엔가입을 봉쇄

1991

- 냉전 종식으로 소련과 중국이 한국의 유엔가입을 반대하지 않게 됨에 따라,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8

이후 1975년부터 1991년까지 남북한은 외교 싸움을 치렀습니다. 여기서 ‘외교 싸움’은 두 나라 모두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유엔 회원국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국제적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을 위해서 먼저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에는 남한이 앞섰지만, 1991년에는 남북한 모두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에 냉전이 종전되고, 중국과 소련이 한국의 유엔가입 허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유엔 가입 후, 한반도 문제는 북한 문제 3건 외 더 이상 의제로 상정되지 않습니다.

남북한 가입 이후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는 모두 북한 문제



현재 유엔 의제상 3대 북한 문제

1. 북한 핵 문제
2. 북한 인권 문제
3.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

국제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북한 관련 문제는 다음 3가지입니다.

1. 북핵 문제
2. 북한 인권 문제
3.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은 저개발국임이기 때문).

이 세 가지 문제는 유엔의 의제로 남아 있습니다.

분단의 현실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지금까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Truth Village로 불리는 판문점에 가면 남한과 북한 군인들이 마주 보며 순찰하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문점에서 가끔 회의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 한민족의 분포



오늘날 전 세계에 8,200만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 5,000만명은 남한에, 2,500만명은 북한에, 나머지 700만명은 타국에 한인 동포로 추산됩니다.

지금부터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진전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기 위한 과제

1. 북한 핵 문제의 해결

2. 남북한 간 신뢰와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

3. 통일에 대한 인식과 관심 제고

첫째, 북핵 문제 해결. 둘째, 남북 간의 신뢰, 국민통합과 정체성 회복. 셋째, 국민 통일 의식 고취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북한 핵문제의 해결



북핵 문제 해결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가장 어렵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북한 핵문제는 15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만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에 북한은 1차 핵폭탄 실험을 실시했고 그 이후 6차례의 핵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실험 성공률이 높아지고 무기가 더욱 강력해 짐을 보아 북한은 지금 매우 위험한 핵무기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예상됩니다.

북핵 문제는 왜 세계적 위협인가: (1)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

- 핵비확산(NPT) 체제에 대한 도전
 - NPT 미가입국은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남수단
 - 인도(1974, 1998)와 파키스탄(1998)은 핵실험을 통해, 이스라엘은 분명한 확인 없이 각각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
 - 이란 핵문제 : 2002년 이래 지속되어 왔으나, 2015.7월 P5+1- 이란간 핵협상 합의로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합의 파기
- 현재 북한 핵문제는 NPT 체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
 - 북한은 21세기에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이자, NPT 체제 내에서 핵무기를 개발 후 탈퇴를 선언한 유일한 국가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세계적인 위협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핵비확산조약(NPT)에 대한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핵비확산조약(NPT)은 1970년에 시행되었으며,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 조약입니다. 대가로 그들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핵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한 모두 핵기술을 얻어낸 것입니다. 북한은 1980년 중반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했고, 이를 통해 소형 원자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북한은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1993년에 제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고, 이 시점부터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협상은 주로 북-미 간에 이뤄졌지만 때로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협상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은 2005년 9월 협정에서 상당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국가로부터 경제적 보상과 외교적 인정 등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는 안타깝게도 성사되지 않았다. 협정 체결 1년 후인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무기가 세계적인 위협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핵무기로 동북아시아에서 지배력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핵 문제는 왜 세계적 위협인가: (2) 지역적 전략 균형의 문제

북한 핵문제와 동북아 안보 지형: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



위 지도를 보면, 북한 핵무기화 이전에는 세 개의 핵무기 국가가 있었습니다 — 미국, 러시아, 중국. 나머지 세 나라 북한, 한국,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이 지역에 존재하는 전략적 균형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나머지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세 가지 입니다. 첫째, 직접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는 것, 하지만 이는 좋은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둘째,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북한은 아직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어려운 과제입니다. 6차례의 핵실험 그리고 그 외 수많은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북한은 아마도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대상일 것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현황

[북한은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음]

- 유류 공급 제한 (기존 수준의 약 50% 감축)
 - 〈휘발유 등 정유제품〉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
(450만 배럴에서 89% 감축)
 - 〈원유〉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 (기존 수준 동결)
 - 〈LNG, 콘덴사이트, 항공유〉 전면 금지
- 북한 생산품 수출 금지: 석탄, 해산물, 섬유제품, 기계류 등
(총수출의 90% 이상 감축)
- 대북 신규 투자, 합작 금지 (기존 합작사업 18.1월까지 폐쇄)
- 북한 근로자 신규 해외 진출 금지 및 기존 노동자 2년내 송환
- 무기 금수 및 북한 행/발 모든 화물의 의무적 검색
- 해외 북한 은행 폐쇄 및 활동 금지

오늘날의 북한은 무역과 금융 활동 등 경제 활동에 대한 여러 제재를 받고 있으며 경제 발전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남북, 북미 관계에 변화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의 과정

- 18.1.1 김정은 신년사, 평창올림픽 참여 시사
- 18.2.9-25 평창올림픽 기간 중 북한 김여정, 김영남, 김영철 방남
- 18.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 18.6.12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 18.9.18-20 문재인 대통령 방북/평양 정상회담
- 19.2.27-28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베트남)
- 19.6.30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담
- 19.10.5 북미 스톡홀름 비핵화 협상 결렬
- 20.6.16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었고, 남북, 북미 관계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실패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며, 지난 6월에는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까지 했는데, 이는 남한과 미국과의 대화 중단 의사표시의 일종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아마 대선 11월 전까지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북핵 문제에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전망(1): 순조로운 과정

[북한이 핵 포기를 통한 경제 발전을 선택할 경우]

-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 제재 해제 등에 관한 구체적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큰 틀에서 북미정상 대화를 통해 해결 가능
 -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로 북한의 대미 위협 감소를 조건으로 비핵화 없이도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상호 조치 순서의 문제일 뿐 궁극적으로 비핵화 없는 제재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특히, 북한측이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이외에 대안이 없음을 깨닫고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경우 현재의 고착상태를 타개 가능
- > 실무협상 또는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한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관한 로드맵이 합의될 경우, 비핵화 이행, 적절한 단계에서의 국제 제재 완화/해제,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시작 등의 상황 전개 가능

첫 번째 시나리오처럼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추구할 의지를 표하더라도 그에 맞는 대가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원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전망(2): 어려운 과정

[북한이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경제 발전을 시도하려는 경우]

- 북한이 보유중인 핵무기 포기 이외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 측에 양보하면서, 비핵화를 장기적 과제로 만들고 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려고 시도 가능
- 즉, 핵·미사일 관련 시설의 부분적 폐쇄와 파괴, 대미 장거리 핵능력 포기, 인권상황의 부분적 개선 등을 통해 미국, 한국 및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제재의 완화/해제를 시도
- 북한측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검증가능한 비핵화 (FFVD)”를 최종 목표로 동의하지 않는 한, 북미간 비핵화 협상 진전이 어려워지고 현재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음.

->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 해결 장기화 가능

그러나 두 번째 시나리오처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원치 않는다면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도 판단됩니다. 부분적 비핵화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북핵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2. 남북한간 신뢰와 민족적 동질성 회복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신뢰와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평창 동계 올림픽은 남북한 단일팀이 구성되었으며, 이는 한반도 전역이 함께 축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이벤트이며, 영구적인 데탕트도 아니었기에,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화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는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유엔의 대북 인도지원 현황
(UNDP, UNFPA, FAO, UNICEF, WFP, WHO)

2014: 33 million USD (ROK:13M)
2015: 36 million USD (ROK: 10M)
2016: 43 million USD (ROK: none)
2017: 39 million USD (ROK: none)
2018: 38 million USD (ROK: none)
2019: 46 million USD (ROK: 10.5M)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이 큰 기근을 겪은 후 늘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이후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일정량의 인도적 대북 조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위 차트에서 보이듯이 북한은 통상 연 4,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를 지원 받았지만, 실제로는 연간 1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유엔의 생각입니다. 이로써 북한은 아직도 많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3. 통일에 대한 인식과 관심 제고 필요



통일, 필요할까? (그렇다 응답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 내가 말하고 싶은 세 번째 요점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 고취입니다. 현재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세대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한국이 분단되었거나 북한에서 온 친척이나 가족이 있는 기성세대는 전반적으로 통일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북한 주민들을 우리의 형제자매로 여기고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엔의 역할

역대 유엔 사무총장

제 1대	제 2대	제 3대	제 4대	제 5대
				
트리그브 리 (노르웨이)	다그 함마술드 (스웨덴)	우 탄트 (미얀마)	쿠르트 발트하임 (오스트리아)	하비에 페레스 데케야르 (페루)
제 6대	제 7대	제 8대	제 9대	
				
부트로스 갈리 (이집트)	코피 아난 (가나)	반기문 (대한민국)	안토니오 구테레쉬 (포르투갈)	

현 유엔사무총장인 구테레쉬를 포함해 유엔에는 9명의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 유엔의 제 8대 사무총장은 바로 대한민국의 반기문 총장입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역대 유엔 사무총장 역할

Trygve Lie (1st Secretary-General, Norway, 1946-1952)

- UNTCOK, UNCURK, UNKRA 등 한반도 지원 기구 설립

Kurt Waldheim (4th Secretary-General, Austria, 1972-1981)

- 남북한간 소통 지원 노력
- 1979년 및 81년 방북

Boutros Boutros-Gali (6th Secretary-General, Egypt, 1992-1996)

- 1차 북핵 위기와 북한 핵문제 유엔 상정
- 1993년 방북

Kofi Annan (7th Secretary-General, Ghana, 1997-2006)

- 북핵 해결 노력 지원

Ban Ki-moon (8th Secretary-General, Korea, 2007-)

- 2010년 Pascoe 사무차장 등을 북한에 특사로 파견

위 모든 유엔 사무총장들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때때로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으나 어떤 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유엔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 유지와 증진은 지역 평화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엄중한 이슈입니다. 유엔, 특히 사무총장들은 이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유엔

유엔에서의 한반도 통일 관련 사항



1. 단일 회원국으로 통합 가능
 - 예멘 (1990), 독일 (1990), 탄자니아 (1964) 통일 사례
2. 통일 한국은 현재 기준으로 유엔 회원국 중 인구 18위, GDP 14위, 유엔 분담금 13위 전망
3. 검토가 필요한 문제들
 - 유엔사 해체 문제
 - 정전협정 처리 문제 (종전선언? 평화협정?)

한반도 통일은 한국에 대한 첫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 구상한 통일 정부의 비전이 (1946년) 70년 만에 실현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남북통일의 성사는 70년 이상이 지난 1947년 제 1차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 구상된 통일된 한국의 비전이 마침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엔의 목표는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모든 시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반도 통일은 유엔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게끔 하고 미래 인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h Joon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Former Korean Ambassador to the UN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virtual semina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y name is Oh Joon, a professor at Kyung Hee university and I used to be Korean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Today I would like to start by inviting you to think about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seventy five years ago. I assume that all of you have some knowledge about the Korean peninsula and Korean peopl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st-1945 World

Korean peninsula is in northeast Asia. It is between Japan and China separated by the sea and as you can see in the map, it is a peninsula, so it is connected to the Asian mainland but surrounded by the seas on three fronts. Korea was divided in 1945.

You would remember that in 1945 the second world war ended. All of the world actually, and in the Asian part or Pacific part of the frontier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now we call it Russia. These countries were fighting Japan. Japan was defeated by United States and Russia and also China won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colonial rule because Korea was a colony of Japan for 36 years so in 1945 when Japan was defeated the troops of United States and also of Soviet Union cam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Peninsula



They divided the peninsula into two along the 38 parallel.

North of 38th parallel, there was Soviet military rule and south of the parallel there was United States military rule, that's how Korea was divided. It was not very intentional but as a result of the post war arrangement the peninsula was unfortunately divided.

1945 -1950: The Birth of the Two Koreas



1945

Independence and Partition of Korea along the 38th parallel

1948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 oversees 1948 general elections in the South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5 (II) acknowledges the legitimacy of the ROK Government

North Korea announces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e north the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while in the south the Republic of Korea was created. In the south, South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conduct general election supervised by the United Nations. But in the North Korea, they did not want any United Nations' involvement s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DPRK government, was established on its own. Then two years later in 1950, North Korea invaded the south, probably because they wanted to unify the whole peninsula under communist rule. It was a pretty big challenge for the whole world because that was the first serious major war that occurred after 1945. So, the united nation, which was advocating the concept of collective security, was seriously challenging by this outbreak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1950-53: The Korean War



1950

- The Security Council authorizes a unified command to fight the armed attack from North Korea and to use the UN Flag (UNSC resolution 84 of 7 July 1950)

The security council met immediately and they decided to send troops to defend South Korea. The troops were called United Nations command, and 60 countries contributed troops to join this command. The war continued for three years. In 1953, the Korean war ended but actually the Korean war ended with an armistice. There was no peace agreement to end the war but they agree to stop fighting under armistice or ceasefire, whatever you call it.

1954-1975 Diplomatic Battle Between the Two Koreas



1954-1975

Under the agenda item “The Korean Question,” UNCURK’s report was submitted and discussed annually in the GA

A GA resolution submitted by the ROK and allies was adopted every year; DPRK and its supporters began submitting their own resolution in 1961, which was consistently voted down until 1974



6

And then after the war, the Korean issue was debated in the UN’s General Assembly every year because the issue was put on the agenda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United Nations, the friends of South Korea and the friends of the North Korea were always arguing about the legitimacy of these two countries. In the beginning there were much more friends of South Korea, so when they adopted resolutions, the resolution was usually initiated by friend of South Korea and another resolution proposed by North Korean friends were always defeated.

1954-1975 Diplomatic Battle Between the Two Koreas

1975



- Contradictory resolutions on Korea from both sides were adopted, demonstrating the pointlessness of the debate and removing the issue from GA agenda from 1976

7

But in 1975 something funny happened, because both draft resolutions proposed by friends of South Korea and friends of North Korea were passed. It didn't make sense because they have these two resolutions had conflicting contents, but somehow the UN member states did not want confrontation, they tried to avoid confrontation. So, these two conflicting resolutions were adopted in 1975. And then the UN general assembly, member state of United Nations thought it didn't make sense anymore to continue to debate the Korean issue because opinion was so divided that if they continue to try to adopt the resolutions they will probably continue to adopt conflicting resolutions. In 1975 they decided to stop the debate and they took this Korean issue from the agenda of United Nations. It was no longer on the agenda of UN.

1976-91: Road to UN Membership for Both Koreas



ROK makes admission to the UN a diplomatic priority

DPRK started to join int'l organizations (WHO, NAM, IAEA) but ROK was winning the diplomatic competition (diplomatic ties with 152 countries compared to 121 for the DPRK as of 1991)

1991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the two Koreas were admitted to the United Nations

8

And then from 1975 to 1991 the two Koreas were competing diplomatically. "Competing diplomatically" means that they try to get recognition from other states because neither of them was ye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If you become a member of United Nations, you can automatically get states recognition as a state but when you are not a member of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you have to get recognition one by one from other countries. So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ere competing to get as many recognitions as possible. South Korea was doing better than North Korea. But in 1991, both Koreas entered the United Nations as member states. Because in 1990, so called the Cold War ended, and the countries that were opposing South Korea's admission, such as China and the Soviet Union, they decided not to oppose South Korea's ad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That's how in 1991 both Koreas were admitted to the United Nations as member states. After that there was no more Korean peninsula issue on the agenda of the United Nations except three North Korean issues.

The North Korean Issues Today at the International Level



- 1. DPRK Nuclear Issue**
- 2. DPRK Human Rights Issue**
- 3. Humanitarian Assistance to DP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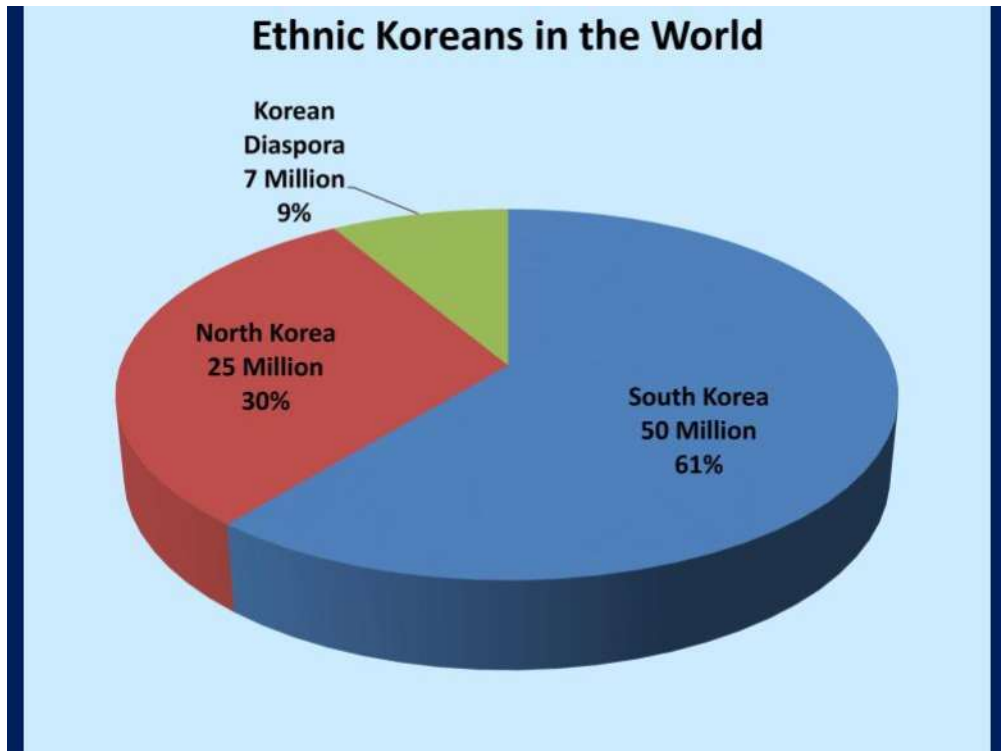
North Korea's official country name is DPRK, so there are three DPRK related issues. They are: Nuclear issue, Human rights issue,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 Because North Korea is under-developed country.

These three issues are still on the agenda of the UN when it comes to the Korean peninsula issu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ality of the Divided Korea



As you know, Korean peninsula remains divided into two and if you go, for example to the village of Panmunjom, which is also called Truth Village, you can still see these soldiers from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patrolling together there, and they sometimes hold meetings at Panmunjom.



In today's world there are 82 million Koreans, ethnic Koreans, all over the world. 50 million of them are in South Korea. 25 million of them are on North Korea and 7 million they are all over the world as Korean diaspora. At this point what I think is most important in making progress toward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 are three things:

What is most important in making progress toward peace and reunification?



1.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2. Restore trust and national identity between the two Koreas.
3. Raise awareness among people on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One,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wo, restore trust and national unity and identity between the two Koreas. Three, raise awareness among people on the necessity of the unification. I will go to them one by one.

1. Resolve the DPRK Nuclear Issue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unfortunately the most difficult and the most urgent thing to do if we want to make progress toward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asn't as big as it is now probably until 15 years ago. But as you know, in 2006 North Korea conducted the first nuclear bomb test and since then they had six rounds of nuclear bomb tests. As they were doing it, their tests obviously became more successful and more powerful so by now we all assume that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 capability which is very dangerous.

Why is it a global threat?



(1) A grave threat to the NPT regime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has been the cornerstone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since its entry into force in 1970.
- The DPRK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developed nuclear weapons within the NPT, and then announced withdrawal from the Treaty.

The reason why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is a global threat is too fold. One reason is because it is a great threat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regime. As you know there is this global treaty called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which came into effect in 1970. According to this treaty, and according the regime the treaty created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promised not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in return, they can use the nuclear technology for peaceful purpose. That's how South Korea got nuclear technology, and how North Korea got nuclear technology as well. North Korea got a small nuclear reactor in the mid-1980s, because they promised not to developed nuclear weapons and they joined the NPT regime. Five sum years later they changed their mind and they started nuclear weaponization.

That's how in 1993,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erupted. since then they are having ups and downs i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o persuade North Korea to give up the nuclear weaponization. The negotiations were mostly conducted between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but sometimes other neighboring countries like South Korea, Japan, China and Russia also participated in the negotiations. They got quite a good deal in 2005 which was called September 2005 Agreement.

According to this agreement, the other countries were going to give rewards to North Korea such as economic rewards and also diplomatic recognition in return for North Korea's giving up the nuclear weapon and missile capabilities. But this deal, which was a good deal actually, didn't go through. The deal broke down in 2006 which means one year later, the agreement broke down because North Korea conducted the first nuclear bomb test.

The second reason why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constitute a global threat is because that can trigger so called nuclear dominance in Northeast Asia.

Why is it a global threat?

(2) Threat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beyond

- A nuclear-armed North Korea will upset the strategic balance in Northeast Asia and may induce a destabilizing arms race in region, undermining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entire world.



If we look at this map in the screen, in this part of the world, in Northeast Asia, before North Korea weaponization there were three nuclear weapons states: United States, Russia and China. And the other three countries, North Korea, South Korea and Japan, didn't have nuclear weapons, but if North Korea becomes a nuclear weapon state what would the other two countries do? The other two countries, meaning Japan and South Korea. Because strategic balance that existed in the region will be threatened by North Korea's requirements of nuclear weapons. For South Korea and Japan, they have only three options: they can also have nuclear weapons, they can develop a nuclear weapons which is not very good idea. Two, they can depend on United States' nuclear umbrella more strongly. Three, they can persuade North Korea to give up their nuclear capabilities and go back to the status quo that existed in the past which is the best way but it's the hardest to achieve because North Korea is not willing to give up nuclear weapons. But because of this nuclear bomb test, six round of tests and also numerous missile tests, North Korea is under united nation's sanctions probably one of the most robust sanction regimes that existed in the history of the UN.

DPRK Nuclear Issue Sanctions

[DPRK is subject to one of the most robust, comprehensive sanctions regimes in UN history.]



- A ban on oil provided to North Korea (about 50% reduction)
- A ban on DPRK's export including coal, seafood, textile and machinery, reducing its foreign export by 90%
- Prohibition of all new joint ventures and additional investment with North Korea
- Banning countries from allowing in North Korean workers

Today, DPRK, North Korea is not able to conduct economic activities outside North Korea, they cannot do much of trade with other countries, they cannot do much of financial activities with other countries so North Korea's chance for economic development is very limited by these sanctions so that's how North Korea is kind of in a dilemma but during the last two years, North Korea looked like changing the course meaning after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in South Korea, North Korea was coming out to the South Korea and to the United States

Recent Developments

Jan 1, 2018: Kim Jong Un's New Year Message

April 27, 2018: Inter-Korean Summit at Panmunjom

June 12, 2018: 1st US-North Korea Summit in Singapore

September 18-20, 2018: South Korean President visits North Korea

February 27-28, 2019: 2nd US-North Korea Summit in Vietnam

June 30, 2019: Panmunjom Gathering of three Leaders

October 5-7, 2019: US-North Korea talks broke down in Sweden

And as you all know, there have been summits meeting for example summit meeting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Jong Un and also summit meeting between President Moon Jae In and Chairman Kim Jong Un, so there appeared some degree of rapprochement.

There was a better mood and improvement of tie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also between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But after the failure of the summit between Trump and Kim Jong Un in Hanoi, February 2019 things were not getting better, things have not been moving forward as you know, and last June, North Korea blow up a liaison office building in Kaesong which was kind of a symbol of their intention to discontinue dialogue with South Korea as well as with United States. So things are now in a statement because United States is now in the election campaign and also because of coronavirus pandemic, I think United States cannot afford to pay too much attention to this dialogue with North Korea so probably nothing much will happen until the US presidential elections

in November but after that, or ever before that, there might be some break through, South Korean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make break through. So the way I see it generally you can say that there are two kinds of different prospects for the resolutions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

Prospects for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A. NK is genuinely willing to pursue denuclearization

Due to the dire situation brought by the sanctions, NK could be willing to give up nuclear weapons in return for appropriate rewards.

- > **The US-NK negotiations will resume and lead to an agreement on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corresponding measures. Even though there will be some ups and downs in working out details of a final deal and on the timeline of its implementation, the issue can be resolved eventually.**

B. NK is not willing to give up all of its nuclear capabilities

NK attempts to muddle through without complete nuclear disarmament and to pursue economic gain through lifting or easing of the sanctions.

- > **Despite the past (and new) Trump-Kim summits, concrete agreements will be hard to achieve, making denuclearization a long-term process**

But in the first scenario is if North Korea is genuinely willing to pursue denuclearization, then even though there will be some ups and downs, even though it will still take some negotiations because North Korea will not just give up nuclear weapons if they want to give them up, they will probably try to sell them at right price, so they are probably want to have something in return for that, but if there are genuinely willing to go for denuclearization then there can be a deal so even though it take time the prospects are not so bad. But the second scenario if North Korea is not willing to give up all of its nuclear capabilities meaning, they want to keep some of their nuclear capabilities even though they might give up some other parts of the weapons, then I think it will be very difficult for these parties concerned to make breakthrough, because you cannot give up part of your nuclear capabilities, either you give them up all together or you keep them.

If that's the case this will make things more difficult and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remain as long term process rather than a quick solution.

2. Restore trust and national identi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second important point, second important consideration, in making progress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how to restore trust and national identity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ctually, as you can see in the photos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helped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athletes participated in it together which was celebrated together by people all over Korean peninsula, either in South Korea or North Korea. But that was kind of temporary, it was not permanent détente, so right now things are not moving forward even between the two Koreas despite three inter-Korea summits in the history of the divided Koreas. The current government in South Korea under the President Moon Jae In is making a lot of efforts to restore this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so we will have to see how they will work.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DPRK is a highly food insecure country, with a population made increasingly vulnerable by continued reliance upon unreliable food supplies” (OCHA)

UNDP, UNFPA, FAO, UNICEF, WFP, and WHO have a presence in Pyongyang with aid programs

Total humanitarian funding by the UN:

2014: 33 million USD (ROK:13M)
2015: 36 million USD (ROK: 10M)
2016: 43 million USD (ROK: none)
2017: 39 million USD (ROK: none)
2018: 38 million USD (ROK: none)
2019: 46 million USD (ROK: 10.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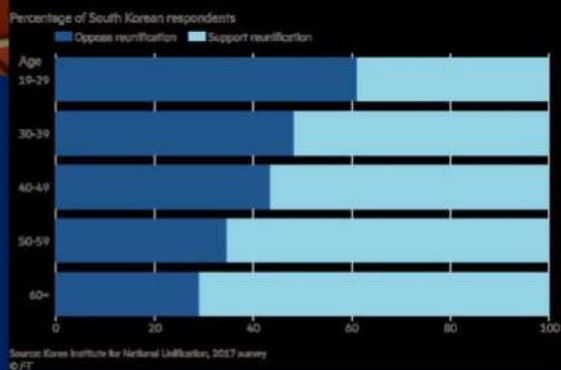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has always been an issue since the mid 1990s, when North Korea had a big famine, and a lot of people suffered from shortage of food. Since then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ways provided a certain amount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s you can see in the chart, the amount that has been provided varied, but it was usually around 40 million dollars a year to 30 million dollars a year, but the United Nations think that actually what North Korea needs as assistance is around 100 million dollars a year. So, what was actually provided to North Korea has always been short of the needed assistance.

3. Raise awareness among people on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The third point I want to make about how to make progress towards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the issue of raising awareness among people on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because in South Korea there is a generational gap on the necessity of Korean unification. The older generation who were young when Korea was divided or has some relatives or family members who came from North Korea, like my generation. You know, it's not too difficult to appreciate that North Koreans are our sisters and brothers, but younger generations whose parents were born even after the Korean War, it's very difficult for them to realize and to feel that North Koreans are our sisters and brothers.

A generational gap is growing on the necessity of Korean reunification.



So as you can see on the results of the poll, there are always much more older people who think we should have unification eventually and younger people who don't necessarily share that kind of view.

Why bother! Some people might think, why bother trying to pursue unification with North Korea when we are so different from each other. So if that kind of gap exists in South Korea, then, as we all know, the old generation will go, and if we don't get unification in 10 years, 20 years, 30 years, I think it will be even more difficult for the two Koreas to be reunited. So that's why we need to raise or maintain awareness among people on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n finally I want you to think about what the United Nations can do to help promote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Nations' Rol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mer UN Secretaries-General



3

As you know there have been United Nations secretaries-general. Including the existing one, Mr. Guterres, there have been nine secretaries-general in the United Nations. The 8th secretary-general of UN was Mr. Ban Ki Moon who was from South Korea.

The United Nations' Rol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UN Secretary-General's efforts in the past:

Trygve Lie (1st Secretary-General, Norway, 1946-1952)

- Played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UNTCOK, UNCURK, UNKRA

Kurt Waldheim (4th Secretary-General, Austria, 1972-1981)

- Tried to open channel of commun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Visited Pyongyang in May 1979 and 1981

Boutros Boutros-Gali (6th Secretary-General, Egypt, 1992-1996)

- United Nations deal with first nuclear crisis under his tenure
- Visited Pyongyang in December 1993

Kofi Annan (7th Secretary-General, Ghana, 1997-2006)

- Endorsed the four-party talks

Ban Ki-moon (8th Secretary-General, Korea, 2007-)

- Dispatched Special Envoy Lynn Pascoe to Pyongyang in 2010

All these UN secretary generals made efforts to contribute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ll, their efforts sometimes brought some progress, sometimes it didn't work. Anyway, from the perspective of United Nations, maintaining and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regional Peace but also peace in the world; global peace. That's how the United Nations, specially the secretary generals, have already been trying to help promote peace on the peninsula.

A unified Korea in the world



- A Korean reunification will mean that after more than 7 decades, the vision of a unified government envisaged in the first GA resolution on Korea (1947) will finally come to realization.

If Korea is unified, if they can get unification, that will mean that after more than 7 decades, the vision of a unified Korea, unified government, envisaged in the first UN generation assembly resolution in 1947, will finally come to realization That would be of historical importance.

Thank You

If you think of the Fundamental purposes of United Nations, that is, to maintain peace and security in the world, to pursu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world, and to promote human rights for all the people in the world, a Korean reunification will contribute a great deal to the achievement of these important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world for the future of the humanity.

Thank you

세션 2

남북한 그리고 세계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발표 1 | Presentation 1

한국 | South Korea

북한 문제 및 통일과 관련한 남한 청년 세대의
인식 그리고 이들의 관심 제고 방안

The perception of young South Koreans on
North Korean issues and on reunification, as
well as how to spark their inte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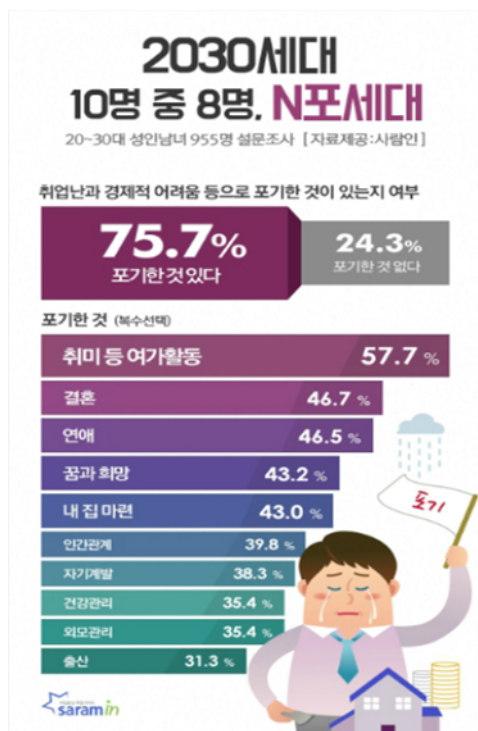
황세영 | 고려대학교

Hwang, Seyoung | Korea University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 청년을 대표하여 발표를 맡게 된 황세영입니다. 저는 현재 국내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전공 중인 학부생입니다. 사실 제 성장배경이 일반 남한 청년들과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비록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대학교 입학 전까지는 중국 상해에서 약 20 년간 거주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의 회사 일 때문에 상해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면서 초중고를 모두 상해에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의 고향은 상하이긴 하나, 항상 머리는 나의 조국,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생활을 하면서 북한 문제와 통일과 관련한 여러 대외활동들을 참가해왔고 동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날 기회를 가지면서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에 대한 제 사고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 발표가 모든 남한 출신 청년들의 생각을 다 대변할 수 없겠지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위주로 서술하여 제가 대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점, 깨달은 점들을 솔직하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발표를 통해 “이렇게 생각하는 남한 청년도 있구나” 정도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국제 평화통일 청년 세미나에 남한 대표로 발표할 기회를 주신 PSCORE 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북한 문제 및 통일과 관련한 남한 청년 세대의 인식 그리고 이들의 관심 제고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북한 문제와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무엇이 북한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칠까요? 흔히 청년 세대는 남북관계나 통일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견지하는 부류 중 하나라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우선, 오늘날 저희 남한 청년들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들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벌, 학점, 어학, 봉사활동, 인턴 등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여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춘 세대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좋은 스펙을 갖추었다고 해서 취업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취업난, 치솟는 물가, 등록금, 집값 등 여러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로 스스로 여유를 가질 수 없어 N 가지 (결혼, 연애, 출산 등)를 포기한 청년들을 N 포세대라고도 불리는 실정입니다. 이런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수식어에서 암시하듯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은 북한 문제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나 한 명 먹고 살기도 힘든데 통일이란 거대 담론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경제학을 전공하는 제 친구는 통일을 기회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며 통일을 하면 남한이 피해 보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남한보다는 못 살기 때문에 남한 국민들이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텐데 왜 더 손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남한도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북한과의 통일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처: 사람인, 2016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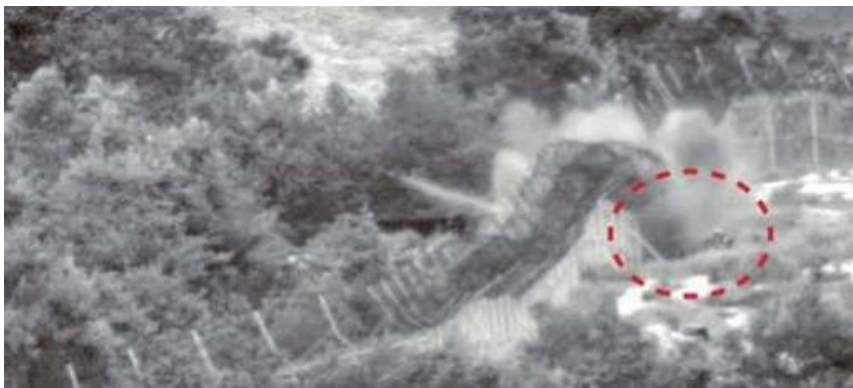
두 번째는 남한과 북한의 서로 다른 체제에서 비롯된 통합의 문제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모든 것이 다 다른 남북한이 1 국가 2 체제와 같은 연방제식의 통일을 하게 된다면 ‘과연 내 자신이 그런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듯 합니다. 전혀 다른 체제를 가진 국가를 내 나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통일의 방식을 떠나 제도적 통합이든 사회적 통합이든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혼란이나, 막대한 비용문제, 무규범 상태, 또 최악의 경우 급증하게 될 범죄를 우려해서 통일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청년들을 쉽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차라리 지금처럼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에서 서로 간의 왕래를 허용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점에서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북한 또는 통일 문제에 있어 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입니다. 저의 친한 친구들이나 여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청년들만 보아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가사말이나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다”라는 구호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식의 당위성에는 찬성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진행형인 북한 관련 갖가지 이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북핵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북한인권, 남북경제협력 문제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속도에 따라 통일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청년분들도 계시고 민감한 사안들이 북한에 대한 특정 인식을 갖는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제 또래 청년들을 ‘북핵 세대’라고 칭하고 싶은데요. 주지하다시피 북핵 위기가 처음 일어난 시기가 1990년대 초반입니다.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던 시점이 지금의 남한 청년들이 태어난 시기와 비슷하고 90년대 초중반 이후 학창시절 내내 북핵 문제 관련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 접해왔기 때문입니다. 96년생인 저 역시 제가 성장하는 동안 남한 정권이 4차례 바뀐 것과 함께 그 속에서 남북관계의 가다서다 현상이 반복되는 것 또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20대가 성장해왔던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남북간에 역사적인 순간들이 많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일어나선 안될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의 6차례 핵실험 이외에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비무장지대 폭탄지뢰 사건, 그리고 올 6월달에 있었던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모두 청년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확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고 안보불안 증폭 그리고 분단의 현실을 실감케 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북한에 대한 지금의 남한 청년들의 인식이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보수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6명의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은 많은 젊은 세대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군복무를 필히 마쳐야 하는 20대 젊은 남성들 중심으로 강하게 박혀있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저희 동년배들이었으며 북한 당국의 진실한 사과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점에서 대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대화 파트너 내지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젊은 층 사이에서 불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태, 그리고 김정일의 이복형 김정남 독살사건은 북한을 야비하고 비인격적인 이미지의 국가로 인식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입니다.



〈출처: 해군 페이스북, 2020 년〉



〈목함지뢰 도발 사건 당시 CCTV 영상/출처: 정경뉴스, 2015 년〉

마지막으로, 지금 청년세대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 중 하나인 ‘공정성’은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공정성이란 것이 청년 세대에서만 중요시 여겨지는 가치관이 아닐 수 있지만 청년 세대에서 특히 민감한 이유는 ‘무한경쟁과 각자도생 사회에서의 생존’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자신의 생존과 탈락을 가르는 만큼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요소라는 것이 지금 청년 세대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통일 문제와 연관이 있으면서도 공정성에 대한 남한 청년들의 강조를 잘 보여준 사례가 2018 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거졌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논란입니다. 남북단일팀 구성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 의사를 밝힌 직후에 이루어져 단일팀 추진이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올림픽의 취지에 부합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 등 분명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이에 분노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라는 거대한 명분보다 선수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4 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단 한 경기라도 출전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며 준비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의 노력이 헛되이 되고 희생해야 한다는 지점에서 많은 남한 청년들은 한국 아이스하키 선수들과 자신을 동일시했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이 사실 국내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라는 점에서 1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달리 대우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남한 청년들은 또 한번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당시 정부의 결정에 많은 아쉬움을 느꼈었습니다. 통일의 관점에서 당시 사태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예고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남북단일팀 구성은 좋다고 보았지만 이를 급하게 준비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에 점진적이고 충분히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정부이든 남북관계라는 명분을 내세워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남북단일팀 구성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금의 청년 세대는 평화 또는 통일 보다는 공정성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점에서 이는 앞으로의 통일 담론을 구상할 때 고려해봐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SBS, 2018 년〉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남한 청년들은 국가의 큰 비전보다는 자신의 인생, 진로,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거나 현실적인 이유들을

고려하여 통일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문제나 통일에 대한 남한의 젊은 층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까요?

저는 가장 먼저 기존의 통일 담론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민족주의와 통일편익을 뛰어넘는 새로운 통일 담론이 필요합니다.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남한 청년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은 이미 분단된지 70년이 넘었고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 편익 관련 담론도 젊은 층 사이에서는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 주장을 가장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1)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북한의 노동력과 합쳐지면 통일한국은 세계 순위권 안에 드는 경제선진국이 될 것이다 2) 분단비용으로 지출되는 막대한 국방비는 통일 이후 다른 분야 발전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아직 통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 해당 주장들의 진위를 직접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우리가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두 논리대로라면 통일한국에게 분명 큰 이점이 될 수 있지만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각 주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잠시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장에는 ‘경제’만 있고 ‘사람’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통일이 없다면 과연 통일한국은 남북한 국민이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경제적 가치만 계속 강조하며 살아온 사회의 끝이 오늘날 남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건 경쟁뿐이었다 라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언제 올지 모를 통일 한국을 제 2의 헬조선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두번째 주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현실적인 고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정세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통일 이후에 국방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일한국의 평화적 발전을 가로막는 외부 세력들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어쩌면 국방 분야에 대한 투자는 통일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통일 담론이 청년 세대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방안으로, 저는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들의 관심사와 연관시켜 진입장벽을 허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북한인권 동아리에서 회장을 맡았을 때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했던 북한인권 동아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수익금 기부 목적으로 매년 1 회씩 모금활동을 진행합니다. 보통 북한인권이라고 하면 정치범 수용소, 강제노동 등 북한사회의 어두운 면을 떠올리기 십상입니다. 물론 그것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현실이긴 하지만 청년 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회원들과 기나긴 논의 끝에 기존에 진행했던 북한음식체험전을 ‘주점’이란 방식을 이용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점은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의 로망으로 꼽을 정도로 중요한 행사인데 신나는 축제 분위기를 이용해서 재미있는 이벤트를 곁들여 주점을 운영한다면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저희는 대학생들의 트렌드와 관심사에 맞추어서 진행하고자 했고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어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동아리는 음식과 주점을 매개로 대학생들이 북한주민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한층 더 가까워진 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나 통일 교육 기관에서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통일교육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생들 대상이라면 대학교마다 통일 문제와 여러 전공을 연관시켜 전공 수업들을 개설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학과라면 통일한국의 건축 변화라는 주제로 남한과 북한의 건축 역사와 특징을 파악하여 앞으로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건축은 어떻게 발전할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업 내용은 전공자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통일은 자기 자신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님을 동시에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흔히 청년들이 통일 시대를 열 주역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전공 분야 또는 관심 분야와 연관지어서 통일 문제를 탐구해볼 기회조차 없는, 어불성설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음식 주점 기획 당시 제작했던 홍보 포스터 및 이벤트 포스터〉

통일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북한 문제 또는 통일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한반도 지도에서 남한이 다른 곳으로 (당연히)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통일의 찬반 논의를 떠나 오히려 통일을 대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동북아처럼 역동성을 지닌 지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통일의 시점도 우린 알 수 없으며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현실은 그러지 못해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정부,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단순 이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문헌

“[특파원 리포트] 한국 젊은이들의 대북관, 이념보다 팩트와 안보 우선, 통일보다 개인 행복이 중요해”, Voice of Korea, 2018년 10월 26일,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463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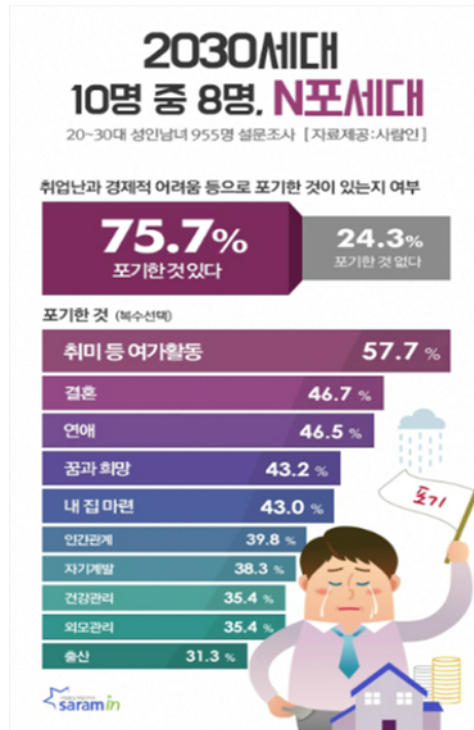
“[박권일, 다이내믹 도넛], 그 ‘공정성’의 의미”, 한겨레, 2018년 2월 8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31475.html>

“[투데이포커스] 청년들은 왜 남북단일팀을 반대할까… 좌우 떠나 ‘공정한 룰’ 원해”, 국민일보, 2018년 1월 18일
<http://m.kmib.co.kr/view.asp?arcid=0012058508>

Hello, my name is Hwang Seyoung and I will be doing a presentation on young South Koreans, as I am one myself. I am currently majoring in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at university, here in Korea. Actually, compared to other young South Koreans, I grew up in a quite unique environment. I was born in Seoul, but I lived in Shanghai, China for about 20 years, until I got into university. I first went to Shanghai because of my dad's job, but ended up completely settling down and attended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Shanghai. Although in my heart, my hometown is Shanghai, I've always had a lot of interest in issues surrounding my homeland, the Korean Peninsula. After coming back to Korea as a university student, I participated in activities related to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got the opportunity to meet many people who were interested in these issues. This allowed me to expand my thoughts and opinions on the topic. I might not be able to speak for all young South Koreans in this presentation today, but I would like to express my subjective thoughts and share honestly what I have felt and come to realize during my time at university. I hope this presentation will help you understand young South Koreans and their thought process better. Also, I would like to thank PSCORE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do this presentation today as a representative for South Korea in this World Youth Seminar on Peaceful Reunification.

In this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discuss the perception of young South Koreans on North Korean issues and on reunification, as well as how to spark their interest. What do young people generally think about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What could help shaping young people's perception of North Korea? It is often said that the younger generation has no interest in inter-Korean relations or that they have negative opinions on these issues, but why is that? First of all, we can start to guess why by looking at the words used to describe young South Koreans today. They are called the generation with "the

best qualifications since Dangun” (the founder of the first Korean kingdom 5000 years ago), because they have many outstanding skills including their academic background, school credits, language studies, volunteer work and internships. However, having these qualifications does not guarantee you a job, and it is difficult to take your first step into society. Economic and social difficulties such as job shortages, soaring prices, tuition fees, housing prices etc., have caused young people to give up ‘N’ things (marriage, dating, having children etc.), which is why this generation is also called to ‘N-po’ Generation, or “numerous giving-up generation”. The phrase, which reflects the grim reality of these young people, suggests that now, young South Koreans do not have the “luxury” to be interested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reunification issues. They say, “I can barely even make a living right now, I can’t afford to care about the huge issue that is reunification”. In reality, my friend who is majoring in economics once raised the question of whether reunification w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South Korea, viewing it not as an opportunity, but as an expense. My friend could not understand why the South would want to face these negative effects as South Koreans would be forced to pay more taxes for the sole reason that North Korea is much worse off economically than South Korea. Furthermore, my friend expressed that realistically, South Korea has been having more economic difficulties, and that we should not proceed to the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as we are not ready for it.



〈Resource: Saramin, 2016〉

Secondly, the integration problem that stems from the very different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two countries are completely different in terms of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so if reunification happens under a “1 country 2 systems” federal model, people might wonder “Will I be able to adapt to such an environment?”. It looks like some people could reject the idea of proudly calling this country, with two completely different systems, “my country”. I have also met very few people who said, “I hope unification doesn’t happen while I’m alive”. They said that they worried about various kinds of confusion, astronomical costs, lack of norms, and in the worst-case scenario, a sharp rise in crime that could come from integration, whether that is systemic or social integration. They said that they would rather have the Korean peninsula divided, though with traffic between the two countries being allowed. In this regard, the young generation is more cautious and negative about reunification than the older generations.

Even looking at my close friends and the young people I've met through various activities, they cannot connect with the words "our wish is reunification" or the slogan "South and North Koreans are the same people" and they do not agree with the idea that "because we are the same people, we need reunification".

Thirdly, there are multiple ongoing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 Examples include North Korea's nuclear weapon program,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as well as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ecause of this, some young South Koreans said they might rethink the possibility of reunification depending on how fast these issues get solved, as sensitive issues affect their perceptions of North Korea. Personally, I would like to call my generation "북핵 세대" (the gener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power). As we understand it,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first occurred in the early 90's. This corresponds to the birth of the current young generation of South Koreans, who have heard about this issue on the news throughout their school years since the early to mid 90's. I was born in 96 and was able to witness four changes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 I was growing up, but the inter-Korean relations just kept repeating the same back-and-forth pattern. The people who are in their 20s right now have experienced, between the 90s and now, many historical moments when it comes to the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it is true that many of them were incidents that should not have happened. In addition to the North's six nuclear tests, the battles of Yeonpyeong, the ROKS Cheonan sinking, the bombardment of Yeonpyeong, the landmine explosion in the DMZ, and the demolition of the Inter-Korean Liaison Office this past June: these were all incidents that have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young people's perception of North Korea and have made them realize the scale of the security concerns as well as the reality of the division. In this regard, I think that the perception that young South Koreans have of North Korea is conservative, although very realistic. The 2010 ROKS

Cheonan sinking, which killed 46 soldiers, seems to be deeply embedded in the minds of the young generation. Personally, I think this is one of the main events responsible for young South Koreans' negative perception of North Korea, especially among young men in their 20s who have to complete their military service. The victims of the ROKS Cheonan sinking were not too far from our age, and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no sincere apology from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reinforces the sense of distrust among young people about whether they can view North Korea as a dialogue partner or a trusted country, despite the current atmosphere of dialogue. Aside from that, the horribl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e poisoning of Kim Jong-un's half-brother Kim Jong-Nam have led to the recognition of North Korea as a country with a despicable and cold image.

Finally, 'fairnes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lues of the youth right now, it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shaping awareness of the reunification issue. Of course, fairness may not be a value that is considered important only to the younger generation, but the reason why it is particularly sensitive in the younger generation is because of the "infinite competition and survival in their own communities". Within the younger generation it is a common perception that fairness is a necessary factor, as small differences separate their survival and failure (elimination). One example of the Korean youth's emphasis on fairness, which is related to the reunification issue, is the controversy over the formation of the women's ice hockey team that was held ahead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e formation of a unified team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took place just after North Korea expressed it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e promotion of a unified team is certainly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Olympics, which symbolizes peace and harmony, and can make positive contributions, such as ea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reating a peaceful atmosphere. Nevertheless, the reason why many young people expressed their

negative views in anger is because they thought it was more important to give each player a fair opportunity than the great caus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any young South Koreans identify themselves with the Korean ice hockey players. Athletes, along with the younger South Korean public, are outraged that all their four year-long effort to participate in an Olympic Game, is often put in vain due to political reasons.



〈Resource: South Korean Navy Facebook, 2020〉



〈CCTV of wooden-box land mine provocation,
Resource: Jungkyung News, 2015〉

In fact, ice hockey is an unpopular sport in Korea, so they felt anger again over whether it can be treated differently even though it is not the top sport. I also felt a lot of regret about the government's decision at the time. If we look at the situ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reunification, I think it was a preview of what kind of reunification we should pursue. Many young people thought it was a good idea to form a unified inter-Korean team, however preparing it urgently can cause side-effects, so we must go through a gradual and sufficient process to persuade the people. Therefore, any government should refrain from pursuing things in an authoritarian way under the pretext of inter-Korean relations. Also, as we can see from the controversy over the formation of a unified team between the 2 Koreas, we believe that fairness is more important than peace or reunification,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uture when discussing reunification.



〈Resource: SBS, 2018〉

As seen above, young South Koreans tend to value their life, career and personal well-being over the nation's great vision. As a result of this, many younger generations are not interested or oppose reunification for practical reasons. So, what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raise the awareness of South Koreans about the North Korean issue or reunification?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existing discourse on unification. We need a new unification discourse that goes beyond the existing nationalism and unification benefits. I think that the logic of “reunification because South and North are the same people” is no longer persuasive to the South Korean youth. This is because the South and North have already been divided for more than 70 years and have maintained different systems and cultures. The discourse on the benefits of reunification seems to be getting less convincing among young people. In this regard, I have heard these 2 arguments the most.

Of course, there is no way to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ese claims because we have not yet reunified. However, we need to approach the matter of reunification carefully as it is an issue that we cannot decide as easily as we flip our palms. In this regard, the 2 logics above can be a big advantage for a unified Korea, but it should not be accepted aimlessly. Above all, I would like to briefly address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n each argument. The first argument is that there is only an ‘economy’ and no ‘people’. Without the reunification of the people, would a reunified Korea be a land where the people of North and South Korea can live happily together? I think today’s South Korea is the result of a society that has been emphasizing only economic values. Considering that competition was the only thing that remained for us when we pursued economic value, we should not make a unified Korea a second Hell Joseon, which may come at any time. The problem with the second argument is that there is no realistic consideration. Considering the highly uncertain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interests of neighbouring pow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we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defence spending will increase further after reunification. The investment in the

defence sector may continue to increase after reunification, to actively block out the external forces that hinder the peaceful development of a reunified Korea. I believe that this new discussion on reunification needs to be realistic and not just present a rosy future, in order to gain persuasive power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As the next step, I think it is important to break the barriers to entry in order to raise young people's interest in reunification. For example, I would like to introduce a project that I partook in when I was the president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Club.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Club, which I am a part of, conducts fundraising once a year for the purpose of raising interest i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and donating profits. Usually, when it comes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people tend to think of the dark side of North Korean society, such as political prison camps and forced labour. Of course, this is the terrible reality that North Koreans go through, but I felt that a different approach was needed to attract the atten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So, after a long discussion with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they decided to conduct the previous North Korean food experience exhibition using a 'pub'. The 'pub' is such an important event that it is the dream of university students' university life, and I thought it would be a good starting point for them to pay attention to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f we run it with an exciting festive mood and a fun event. In other words, we wanted to keep up with the trends and interests of college students and to lower the entry barriers by allowing them to indirectly experience the daily lives of North Koreans. As a result of this, our club helped college students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ives of North Koreans through food and bars. As such, I think it is urgent for the government and reunification education institutions to provide a customised reunification education for young people. Especially for students, it is also a good idea to support universities to open major classes by linking unification issues with various majors. As for the major Architecture, for example,

under the theme of 'Architectural Change in a Unified Korea', the contents of classes that understand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e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stimulate the imagination of how architecture will develop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reunification will be enough for those who majored in architecture to pay attention. This is expected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us to realise at the same time that unification is not a far-off story that has nothing to do with us. It is often said that young people are the main players in the era of unification however, I do not think that anything absurd should happen without having the chance to explore unification issues related to their major or interests.



〈Promotional event posters during the planning of a North Korean bistro〉

Whether you are in favor of or against reunification, whatever you may think of North Korea, I believe that the reunification issue as well as North Korean issues are inevitable to South Koreans. Even if there is a certain hostility towards North Korea, it is (obviously) impossible to move South Korea to another location. This is why I believe that we should prepare thoroughly for reunification rather than discussing the pros and cons. Because North East Asia is such a dynamic region, it is impossible to predict what will happen, which is why we cannot tell when reunification will occur, and also why things do not go our way. The young generation, which will be responsible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needs to be interested in these issues, now more than ever. However, I am concerned that this is not the case. Therefore,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political circles, academia, civil society, etc. to make efforts to spark young people's interest in reunification. Let's not forget that only the prepared take the opportunity.

References:

“[특파원 리포트] 한국 젊은이들의 대북관, 이념보다 팩트와 안보 우선, 통일보다 개인 행복이 중요해”, Voice of Korea, 2018 년 10 월 26 일,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4630210>

“[박권일, 다이내믹 도넛], 그 ‘공정성’의 의미”, 한겨레, 2018 년 2 월 8 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31475.html>

“[투데이포커스] 청년들은 왜 남북단일팀을 반대할까... 좌우 떠나 ‘공정한 룰’ 원해”, 국민일보, 2018 년 1 월 18 일
<http://m.kmib.co.kr/view.asp?arcid=0012058508>

발표 2 | Presentation 2
북한(탈북민) | North Korea (A North Korean defector)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통일을 바라보려는 노력
Reflect the efforts to view reun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Koreans

김이슬
Kim Yiseul

1. 소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9년 탈북 하여 현재 북한학과에 재학 중인 김이슬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고, 현재 북한학과를 다니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 각국의 대표들과 한반도의 통일을 논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북한 대표로 참석한 만큼 저의 글에는 최대한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통일을 바라보려는 노력들이 스며들 것입니다.

※ 신변문제로 인해 구체적인 고향과 대학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 발표문

초기 남북이 분단되면서 우리 민족은 남녀노소 분단된 한 민족이 하나의 통합을 이루기를 소원했다. 당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는 통일노래(우리의 소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자라 교육을 받았던 필자에게도 통일노래는 매우 익숙하다. 하지만 분단 70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인가? 연령별로 통일에 대한 인식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분단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높은 연령에서는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지만, 젊은 층에서는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2018년도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에서 청년(전국 4년제 대학생 1,058명)을 대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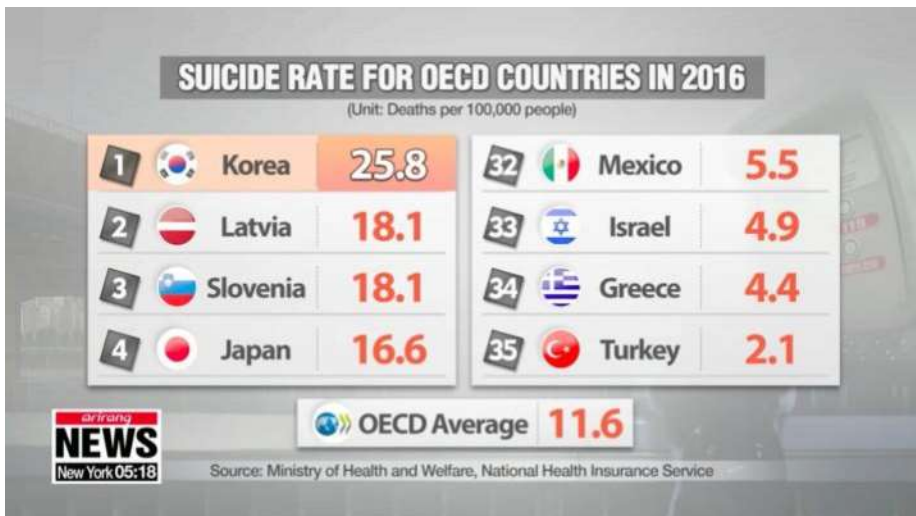
로 실시한 ‘통일·외교안보에 대한 의식 조사연구’에 따르면 통일을 매우 필요하다고 답변한 비중이 전체의 20.9%로 매우 낮게 나타나며,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1.9%,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수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해빙무드가 형성되고 난 이후 조사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반영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절대다수가 아님을 말해 준다. 아무도 예상 못한 시기에 불현 듯 찾아올 수 있는 통일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정치·경제·문화의 주도적 역할을 할 젊은 층의 통일인식은 매우 중요하며 관련연구자들 또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북한주민의 응답 결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2011년에는 95.2%, 2012, 93.7%, 2013년 93.3%로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¹⁾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하지만 필자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통일편익이다. 오늘날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척도는 통일이 얼마나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막연한 상상에서부터 시작된다. 더 이상 통일이 인도주의적 관점이나 단일 민족의 역사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편익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지기 때문에 남북한 주민이 상이한 입장을 갖는 것이다. 지나치게 강압적인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은 통일을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돌파구 정도로 생각하는 반면, 단기적으로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남한주민들은 부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통일을 양손 들고 환영하지 않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위와 같은 인식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따져 본다면 통일은 양자 모두에게 이익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논리를 보면, 흔히 통일을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선진기술의 융합으로 접근하여 그 시너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북한주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선 필자는 남한의 우월주의의식이 통일 과정에서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한우월주의는 남한의 정치·경제·문화를 일방적으로 북한에 이식하려는 위험한 사고를 낳게 될 것이며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다. 인권이 묵살당하고, 자유가 억압되고

1) 정은미,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통일과 평화(5집 2호 · 2013), p.7.

있는 실패한 북한체제의 정치 이념 및 통치체제는 사실 논할 가치도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북한사회에 이식 할 만큼 그 가치가 입증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오늘 날 우리 사회는 불평등 및 양극화로 인한 사회문제, 세계적으로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정치적 진영싸움, 불균형발전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밀집, 개인주의로 인한 정서적 소외,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아리랑 뉴스 :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인 한국 (2016년)〉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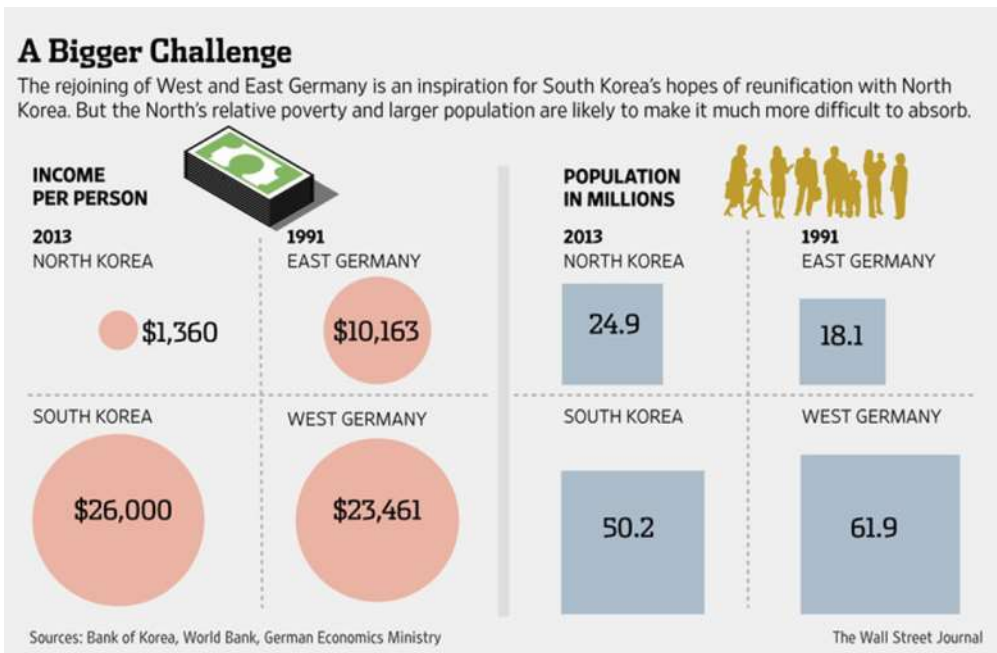
〈아리랑 뉴스 : 자살은 한국에서 지난 11년간 가장 큰 사망이유〉³⁾

2) Arirang News - <https://www.youtube.com/watch?v=T9LwfS73pZo> (South Korea recorded highest suicide rate in OECD in 2016)

3) Arirang News - <https://www.youtube.com/watch?v=zTIMmBBqsKY> (Suicide turns out to be the major cause of youth death: Statistics Korea)

필자는 이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행복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2017년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OECD 31개국 가운데 23위로 하위에 머물러 있다.⁴⁾ 계속해서 개인 소득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 필자는 육체적 고통 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힘들다는 말을 어느 정도 공감한다.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북한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육체적 고통을 겪더라도 극단적인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떤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는 통계자료를 통해서 계속해서 입증되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필자가 이처럼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나열하는 것은, 위와 같은 문제의 해답도 없이 남한의 것을 무조건 적으로 북한에 이식한다면 또 다른 문제야를 양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남한우월주의는 북한주민을 2등 국민으로 전락시킨다. “남한은 도움을 주는 자, 북한은 도움을 받는 자”로 인식하여 사회분열을 가져오게 된다. 실제로 독일이 통일 후 겪고 있는 후유증을 통해서도 통일한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 남북한 - 동서독 통일비용 비교 〉⁵⁾

4) 정수연, 연합뉴스, “30년 전에도 3년 전에도 “한국인 행복지수는 OECD 하위권”,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4134700002> 검색일: (2020.07.08)

통일독일에서 동독주민들은 낙후된 환경뿐 아니라 급격한 체제 변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열등한 국민으로 생각하여 2등 국민 정서가 형성되었다. 통일 초기인 1990년대 초에 동독주민의 80%가 자신을 통일된 독일의 2등 국민으로 인식⁶⁾하였고, 최근 들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정서가 남아 동서독 국민의 심리적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우월주의 기반으로 통일된 통일한국에서 북한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문제의 대부분이 남한사람들의 비교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비교 심리”가 주는 불행은 참으로 무섭다. 상대적빈곤, 상대적박탈감, 열등감 등으로 인한 좌절감은 북한주민들에게 현실에 대한 절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때문에 우리의 통일은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남북한이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선책을 찾는 것에 주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5) The Wall Street Journal, Walls Still Impede South Korea's Reunification with North, Nov.6, 2014
<https://www.wsj.com/articles/walls-still-impede-south-koreas-reunification-with-north-1415276912>

6) 강구섭, “독일 통일 후 퍼진 ‘2등 국민’ 정서, 남의 일이 아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7862
검색일:(2020.07.09.)

1. Introduction

Greetings, my name is Kim Yiseul. I defected from North Korea in 2009, and I am currently majoring in North Korean studies. Given that I am from North Korea and major in North Korean studies, I have a keen interest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reunification matter. As an individual who is getting prepared for the future of reunification, it is an honor for me to be able to discuss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representatives of respective countries. Since I am representing North Korea, my writing will reflect the efforts to view reun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Koreans as much as possible.

※ Due to personal circumstances, neither my hometown nor university is specified.



2. Speech

With the division of two Koreas in the early period, our disintegrated nation hoped for a unification of Koreans from all walks of life. During the early period of division, the Korean individuals' consensus on reunification could be seen through the reunification song, "Our Hope."

This reunification song is greatly familiar even to me despite growing up and receiving education in North Korea. However, even after 70 years of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our hope still the reunification, and the hope in our dream reunification? (reference to the reunification song, "Our Hope.") The perception of reunification varies by age. There is a greater sense of awareness in the higher age group that had directly experienced the division, while the perception of reunification in the lower age group appears to be significantly 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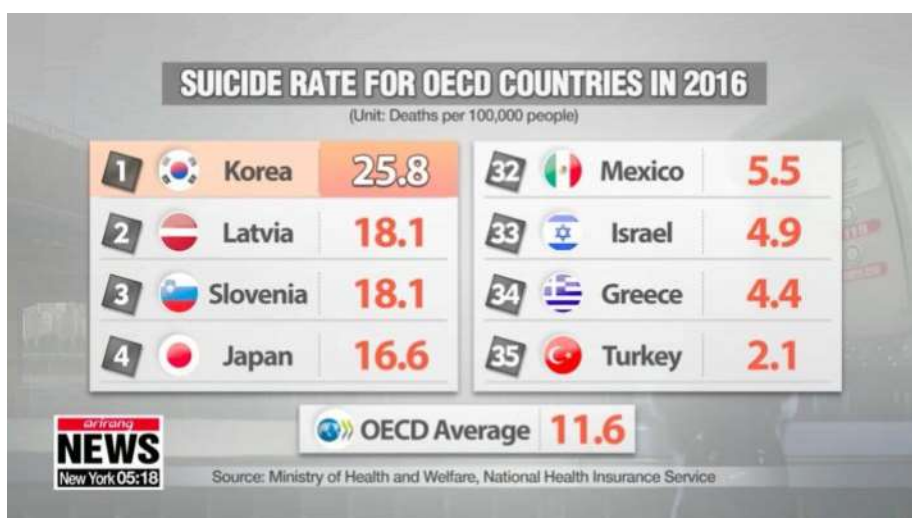
According to the study about the "Consciousness of Reunification and Foreign Security" conducted in 2018 on young people (1,058 four-year college students nationwide) by an organization in South Korea called The Youth and Future, the proportion of those who answered that unification was very necessary was extremely low, with a percentage of 20.9%. 31.9% of them said that it might be slightly necessary, and the rest of the percentage didn't seem to be interested or said it was unnecessary. The figure is still low despite the fact that the survey reflects a positive change in perception after a reconciling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formed after several inter-Korean summits in 2018.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ose who think that 'our wish is unification' are no longer the absolute majority in our society.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unification, which can come at a time when no one expects it, young people's awareness of unification will play a leading role in future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As it is imperative, I think that the related researchers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it.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of North Koreans' responses are very contrasting. The opinion that unification is necessary is overwhelming, with 95.2% in 2011, 93.7% in 2012, and 93.3% in 2013.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Korean individuals' perception of reunification vary. However, I place the most attention on the benefits

of reunification. Today, the measure by which both South and North Koreans perceive the need for reunification begins with a vague imagination of how reunification can bring about personal benefits. The matter of reunification is viewed differently by South and North Koreans because it is no longer approached from a humanitarian perceptive or recovery of a historically united nation but rather, it is approached from a perspective of economic gains. On the one hand, North Koreans are deprived of freedom and suffer from extreme poverty under an excessively coercive authoritarian regime, which implies how they view reunification as a breakthrough that can improve their standard of living to a certain extent.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ns do not welcome reunification with open arms because they are given no choice but to bear the costs and burden of reunification in the short run.

In the short run, the aforementioned perception of reunification is not entirely groundless. However, tak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to a long term consideration, reunification needs to be clearly recognized as a benefit for both North and South Koreans. Moreover, the integration between cheap labor from North Korea and advanced technology from South Korea is associated with the logic of a positive view of reunification, where this synergy is regarded positively. As a representative of North Korea, I assert that South Korea's sense of superiority should be excluded from the reunification process as much as possible. This is because it indicates the detrimental incidence of unilaterally grafting South Korea's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assets into the North, thereby creating unimaginable social problems. In fact, it is not worth discussing about the suppression of freedom and negligence of human rights under the failed political ideology and governing system of the North Korean regime. Instead,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South Korea's democratic and free market economy is worth translating into North Korean society. Today, our society is faced with a variety of social challenges including issues of

inequality and polarization, the highest suicide rates among the youth and senior citizens, political conflicts between the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high concentration and density of popul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s a result of uneven development, emotional alienation due to individualism, as well as environmental challenges.



〈South Korea recorded highest suicide rate in OECD in 2016〉



〈Suicide turns out to be the major cause of youth death: Statistics Korea〉

Hence, I would like to raise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ether the members living in such a society are happy. According to the Happiness Index of 2017, South Korea was ranked 23rd among 31 OECD countries. Furthermore, our lives are not necessarily happy despite increasing personal incomes. I agree, to a certain extent, to the statement that mental distress is more difficult to handle than physical suffering. According to my personal experience, North Koreans are not prone to extreme thoughts no matter how much physical pain they undergo. But what about South Korean society? People of diverse ages suffer from emotional distress that leads them to feel suicidal or in the worst scenario, make extreme choices. Thus, this is a serious social issue that continues to be highlighted through statistics. My intention of listing the various South Korean issues is to demonstrate that if South Korea unconditionally transplants its own elements into the North Korean society without resolving the aforementioned set of social problems, it will be no different from nurturing yet another troubled child.

In addition, South Korean supremacy may reduce North Koreans and perceive them as second-class citizens. "South Korea gives help, North Korea receives help," is the type of mindset that will lead to social division. For example, the aftereffects and experience of Germany's reunification can be used as a model to predict the future of a reunified Korea.

A Bigger Challenge

The rejoining of West and East Germany is an inspiration for South Korea's hopes of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But the North's relative poverty and larger population are likely to make it much more difficult to absorb.



〈Walls Still Impede South Korea's Reunification With North〉

In reunified Germany, East German residents thought of their position as an inferior citizen at a time when they had to accept drastic changes in the system as well as the underdeveloped environment, and this in turn created a second-class national sentiment. In the early 1990s, 80% of East German residents recognized themselves as the second-class citizens of reunified Germany, and although they have been improving recently, the sentiment still lingers, undermining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integration of East-West German people. At this point in time, it is no longer just their problem. It is highly likely that most of the psychological problems that North Koreans may possibly feel in a reunified Korea based on South Korean supremacy will begin by segregating and drawing a line between them and the North Korean people. The misfortune of "comparative psychology" is truly frightening. The frustration caused by relative poverty, deprivation and inferiority may possibly lead North Koreans into a disparity of the harsh reality. So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we must pioneer a third path to eradicate and rectify these problems. Therefore, our

unification should be carried out gradually through thorough preparation and we should focus our efforts on finding the best way for the two Koreas to lead a peaceful, and happy life together.

References:

정은미,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통일과 평화(5집 2호 · 2013), p.7.

Airang News - <https://www.youtube.com/watch?v=T9LwfS73pZo>
(South Korea recorded highest suicide rate in OECD in 2016)

Airang News - <https://www.youtube.com/watch?v=zTIMmBBqsKY>
(Suicide turns out to be the major cause of youth death: Statistics Korea)

정수연, 연합뉴스, “30년 전에도 3년 전에도 “한국인 행복지수는 OECD 하위권”,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4134700002> 검색일:
(2020.07.08)

강구섭, “독일 통일 후 퍼진 ‘2등 국민’ 정서, 남의 일이 아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7862 검색일:(2020.07.09.)

발표 3 | Presentation 3
미국 | United St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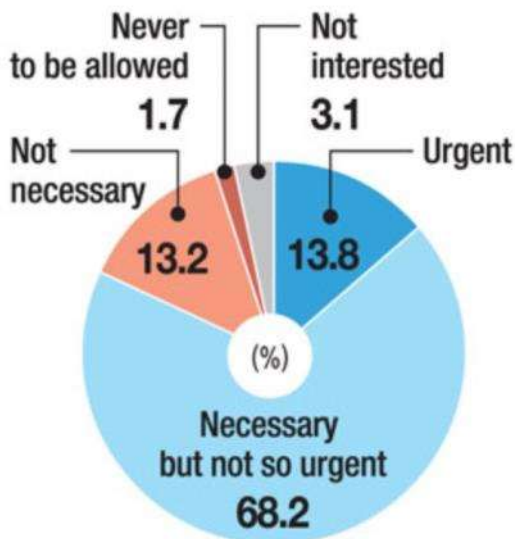
1년(혹은 70년)이 만들 수 있는 차이
The Difference a Year (or Seventy) Can Make

Meghan McAllister
The College of New Jers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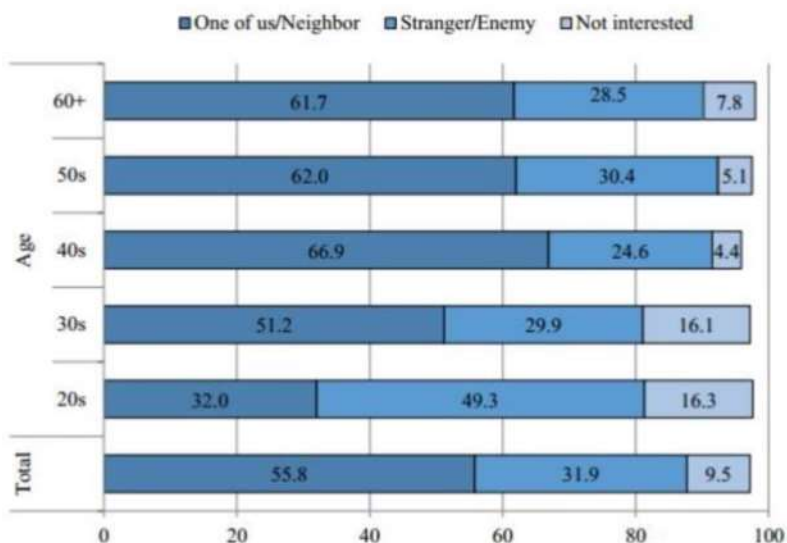
1년(혹은 70년)이 만들 수 있는 차이

한 때 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산과 문화를 공유했던 두 나라인 남한과 북한은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공산주의를 택한 북한과 민주주의를 택한 남한 - 그 두 나라가 분열된 것은 불과 70년 전이다. 그들 사이의 기본적인 정치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같은 민족, 문화, 제도를 가졌던 두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여전히 흥미롭다. 분열 후 북한은 독재자에 의해 통치되는 전체주의 국가, 굶주림, 가난, 인권 침해에 시달리는 국가로 변모하는 반면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보아온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경험하며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한 나라로 자리를 잡았다. 소련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북한은 서구 세계에 대해 편집증적으로 변하고 완벽한 군사 방어 체제에 집착하게 되어 궁극적인 통제에 몰두하는 독재자가 되었다. 서구의 영향을 받은 남한은 대신 민주주의와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큰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다. 각국이 분열과 독립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각 나라의 미래를 형성했고, 이것은 최근까지도 지속되는 이 큰 격차를 이끌어 냈다. 1950년대 한국의 분열은 "사회과학의 통제된 실험-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실험"을 만들어 냈다. 이 '통제된 실험'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새로운 발전이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 남

Is inter-Korean unification necessary?



북 통일은 분단 이후 남북 모두의 목표였다.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기껏해야 걸끄러워 왔지만(그리고 안좋은 경우 적대적) 그들은 둘 다 통일된 한국을 다시 한번 촉진시키고 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2018년에 얻은 탄력은 줄어들었지 모르지만, 나는 남북통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적절하다고 믿는다.



남한의 관점

통일에 관한 한 한국의 기성세대는 전반적으로 통일을 지지한다. 그들은 한국을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기억하고 있고, 다시 하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들은 또 한 북한에 친척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통일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그런 애착이 없다. 그들은 통일된 한국에서 자라지 않았고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적대감 속에서 자랐다. 그들은 국경 넘어 가족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적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게다가, 그들은 통일의 영향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다. 통일이 되면 자국의 경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미 경쟁이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더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그들이 원치 않는 일이다. 통일은 전반적으로 남한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고, 기성세대는 기꺼이 그 부담을 짊어질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은 그렇게 예민하지 않다.

그러나 남한의 모든 젊은이들이 통일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강한 일반화이다. 그들 모두가 통일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대부분 그 주제에 대해 그 어떤 주제보다 더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남한의 젊은이들은 북쪽과 거의 관계가 없다. 그들은 북한 사람들을 같은 문화적, 민족적 뿌리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지만, 각 나라의 정체성은 지금까지 서로

멀어졌고, 서로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낀다. 이러한 정체성 격차는 매년 더 벌어지는데,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온화함과 민족적 민족주의를 느끼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북한을 이방인, 언어와 공통의 과거 외에는 거의 공유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뚜렷한 무관심을 보인다. 게다가, 젊은이들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와 같은 현재의 문제들에 매우 관심이 있지만, 그들은 통일의 주제를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것은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이러한 소극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과 남한과 탈북자를 연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아마도 더 많은 연결고리를 갖는 것은 통일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것이다.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북한과 연결시키는 것이 통일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노년층을 설득하는 것은 단순히 젊은이들에게 통일의 혜택을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통일에 이어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지 젊은 세대들의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 과정의 일 부분은 젊은 세대들이 북한과 통일하는 데 따른 충격에 의해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나는 젊은이들과 북한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합병을 통한 장기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며, 통일을 위한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의 관점



〈Jimmy Kimmel Live: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북한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까?〉⁷⁾

통일이 되면, 한국의 가장 큰 동맹국으로서 미국은 통일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은 애초에 남북한의 존재를 창조하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소련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 제3세계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미국 내에서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으로 바뀌었다. 이 운동이 미국이 한국에 개입하고, 북한과 남한 사이의 임의적인 경계를 굳게 만든 것이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을 계속 돕고 보호함으로써 한국의 부흥을 이끌었다. 남한이 미국이 가장 관여하는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우습게도 미국은 북한과도 공통점이 있다. 미국과 북한 모두 비슷한 야망/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 유사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바로 제국이 되는 것이다. 둘 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인류의 진보와 진화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요즘 시장과 소프트파워를 통해 정복하는 동안, 북한은 모든 힘을 가진 제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쫓기 위해 위협을 가하고 핵 프로그램을 과시한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아무 제지 없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아마도 나라를 '강력한' 상태로 만들고 있지만, 자원 추출 또는 활용이나 강한 경제 유지에 능하지 못해 스스로 '약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이것이 북한을 역설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이 통일 과정에 개입하기 어려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은 국가를 만드는 데에 있어 이방인이 아니다. 미국이 잘 하는 일 중에 하나이다. 미국이 외국을 '도움'하기로 결정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모두 자유주의에 관련 되었을 수 있다; 미국이 개인주의를 추진하는 만큼 자유주의에서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세계는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의 문제에 한 번 더 관여하는 것에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전역에 자유주의를 확산시키려면 치열한 사회 공학을 치려야 할 것이다.

결국, 미국이 통일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인들 스스로도 북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미국인들이 '북한 문제'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즉시 미국인들의 마음이 그 문제를 '북핵 문제'로 생각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미국이 북한과 교류하는 유일한 방법이 비핵화라는 화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이상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그리 많지 않으며, 확실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일 문제가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어떤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을

7) Jimmy Kimmel Live, 2017년 8월 8일, <https://www.youtube.com/watch?v=-ugJZhL-cbc>

수도 있고, 그 나라의 상태와 인권 침해에 대해 막연히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세부적인 것도 없고 깊이 아는 것도 없다. 그러므로 저는 미국 젊은이들을 통일이 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좋은 방법은 애초에 미국이 무엇에 기반을 두었는지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고, 미국보다 이 아이디어를 더 내세우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때때로 지나치게 우리의 자유가 자랑스럽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미국이 각국에 자국을 끼워 넣은 오랜 역사가 있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이 끊임없이 고용하고 있는 선동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북한이 저지르는 잔혹행위에 초점을 맞추려는 더 큰 추진력이 있다면, 미국인들은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젊은이들이 두 나라를 통일하는 것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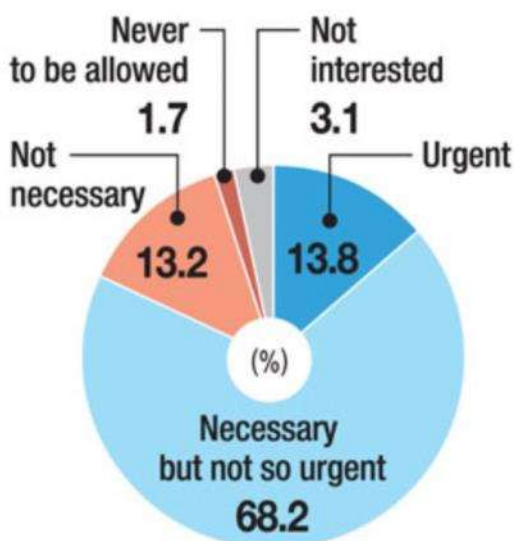
결론

필자는 개인적으로 통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추측조차 할 수 없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북핵을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만큼 똑똑한 척 할 수 없다. 필자가 아는 것은 통일의 경우 청년층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모든 나라의 미래로서 통일의 효과를 가장 많이 다뤄야 할 사람들은 젊은 세대들이며 그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은 오로지 법률, 정치, 경제 분야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며, 각 나라의 사회 문화 통합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고 미국 쪽에서 볼 때 미국이 관여해야 할 현대화 과정 및 재건 규모는 상당할 것이다. 통일 과정이 길고도 험난할 것이 분명하므로 미국 젊은이들의 인지도와 지지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통일된 한국은 최대한 안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정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려는 젊은 세대의 의지는 매우 귀중합니다. 통일된 한국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의 지지와 노고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관련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중요하다.

The Difference a Year (or Seventy) Can Ma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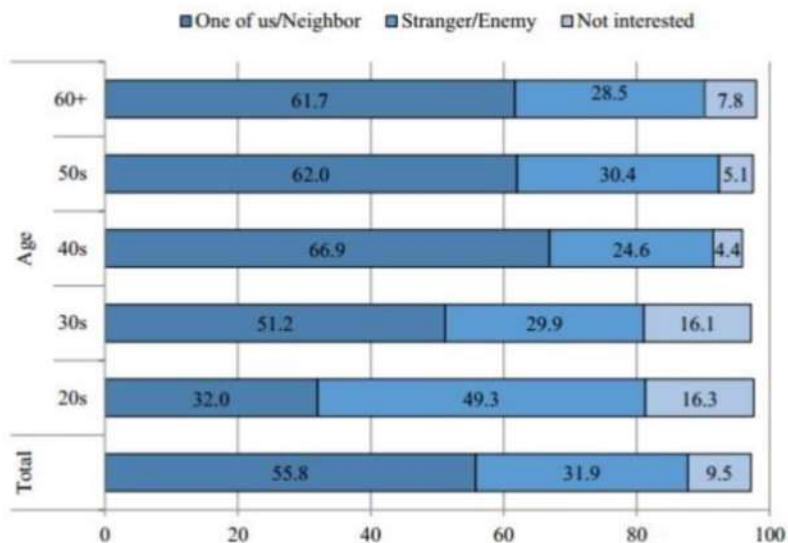
For two countries that once shared a heritage and culture for over a millennium, North and South Korea are currently the only divided country in the world. It was just 70 years ago that the two countries split, a line drawn between the Communist-leaning North and the democratic South. Eve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basic political differences between them, it is still interesting to see how, with the same people, culture, and institutions, both countries would change in such drastic ways in such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Post-split, North Korea would transform into a totalitarian state ruled by a dictator, the population struggling under hunger, poverty, and human rights violations, while South Korea would experience some of the fastest economic growth seen in recent years, earning its place as one of the Asian Tigers. The Soviet-influenced North would become paranoid of the Western world and obsessed with a perfect military defense system, leading to a dictator bent on being in ultimate control. The Western-influenced South would instead focus on democracy and economic rehabilitation, ushering in an era of great

Is inter-Korean unification necessary?



prosperity. How each country reacted to the split and their newly found independence would shape their future, leading to this wide gap between them that is still seen today. The fracturing of Korea in the 1950s would create a “controlled experiment in the social sciences—one involving millions of human beings”.

This 'controlled experiment' continues to this day, but a new development could be on the horizon. Reunifying the two Koreas has been a goal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 since their split. While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always been strained at best (and at worst extremely hostile) they both promote the idea of a unified Korea once more. So while the momentum gained in 2018 after the inter-Korean summit may be dwindling, I believe reunification of the two countries is more germane than ever.



South Korea's View

When it comes to reunification, the older generations in South Korea support the movement across the board. This makes sense—they remember Korea as one united country, and would like it to return to one. They're also much more likely to have relatives in North Korea, increasing the need for reunification to join them again. The younger generation, however, has no such attachments. They did not grow up in a unified Korea—they grew up during a time of constant provocation and hostility from the North. They are much less likely to have family across the border, thus they don't see this issue from a sentimental standpoint. Moreover, they are acutely aware of reunification's impact. Reunification could have a huge effect on the

economic stability of their country, and in an already extremely competitive job market, adding more strain would be unwanted. Reunification would overall be an economic burden on South Korea, and while the older generation may be willing to shoulder that burden, the youth is not as keen.

However, saying that all of the youth in South Korea are opposed to reunification is too strong a generalization—they are not all opposed to reunification per se. Surveys show they are mostly more indifferent to the topic than anything. As stated previously, the youth in South Korea connects very little with their cohorts in the north. They do see North Koreans as sharing the same cultural and ethnic roots, but each country's identity have strayed so far from each other, they feel so out of sync with one another. This identity gap widens every year—where the older generations still feel a sense of oneness and ethnic nationalism, the younger generations recognize North Korea as a stranger, a country that shares little other than a language and a common past. Thus the marked indifference to reunification. Additionally, while the youth is very keyed in to current matters such as social and political issues, they see the topic of reunification as unimportant to them. It does not affect them, so they don't spend too much time thinking about it. To remedy this passivity, I believe there should be an increase in education and an effort to connect South Korean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Perhaps having more to connect with will increase an interest in reunifying the two nations. Educating the youth and having them connect to North Korea on a higher level will be a key factor in reunification. Trying to convince the older population is a much harder task than simply educating the youth on the benefits of reunification. As stated previously, there is skepticism from the younger generations that the economy will be able to hold following reunification. Thus part of the reunification process would definitely have to include some kind of program to insure economic security to reassure the younger generation that they would not be hit as hard by the ramifications of absorbing North Korea. I believe

increasing a connection between the y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 focusing on the long-term benefits of the merger would be beneficial for all, and would garner support from the younger generations for reunification.

The United States' View



〈Jimmy Kimmel Live: How Many Americans Know Where North Korea Is?〉

When the time comes for reunification, as South Korea's greatest ally the United States will no doubt have a role in the process. After all, the United States had a hand in creating the existence of two Koreas in the first place. What began as an effort to undermine the Soviet Union morphed into a crusade to develop Third World communities and maintain consensus in the US. This 'crusade' is what made the United States interfere in Korea, and draw the arbitrary border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The US would continue to assist and protect South Korea to promote democracy, thus leading to South Korea's rise. Even though South Korea is the Korea the US is most involved with, funnily enough the United States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North Korea as well. Both the US and North Korea are structured similarly in a way in the sense that they have a similar

ambition/ideology: being an empire. Both believe they're offering humanity progress and evolution to achieve their full potential. But while the United States conquers through markets and soft power these days, North Korea uses threats and flaunts its nuclear program to follow its ambition of being an all-powerful empire. However, even thoug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oes what it pleases with nothing holding it back, thus perhaps making it a 'strong' state, the government is not very good at extracting and using resources or maintaining a strong economy, thus making it a 'weak' state. This is what makes North Korea such a paradox of a country. It's also one of the reasons why it might be difficult for the US to insert itself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However, the United States is no stranger to nation building. It's basically what America is known for. While there are many reasons given for why the US decides to 'help out' foreign countries, it can all be tied back to liberalism; for as much as America pushes individualism, it does not want to be alone in its liberalism. The world would not work in America's favor if this was so. Therefore the US will be more than happy to interfere once more in Korea's affairs to promote reunification. However, intense social engineering would have to take place to spread liberalism throughout North Korea. So, it's accept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have a hand in reunification. However, Americans themselves have a fairly limited scope on North Korean issues. When we hear 'North Korean issues' you can bet our minds immediately jump to understanding that as 'North Korean nuclear issues'. This is most probably due to the fact that the only way in which the United States interacts with North Korea is on the topic of denuclearization. There is not much awareness about North Korean issues beyond that, and certainly most people have no idea that the matter of reunification is even being considered, much less what that means for the countries involved. Many Americans might have a concept in mind about North Korea and may vaguely be aware of the state of the country and their human rights violations, but nothing in detail and nothing in depth. Therefore,

I believe a good way to get the American youth invested in the topic of reunification would be to draw on what America was founded on in the first place. Everyone deserves basic human rights, and no one touts this idea more than the USA. We're proud of our freedom, sometimes excessively so. And as stated above, there is a long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inserting itself in countries to promote liberalism and democracy. But the awareness of North Korean issues simply isn't there. I think if there was a greater push to draw attention away from the instigating actions that North Korea constantly employs and instead focus on the topic of the atrocities that North Korea commits, they would definitely look for a way to stop them from occurring. Reunifying the two countries would be something the American youth could get behind.

Conclusion

I personally can't speculate on how the reunification progress will even take place. I can't pretend to be intelligent enough to offer a way to terminate the war and dismantl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hat I do know, is that in the case of reunification, the youth are immensely important. As the future of our countries, it's the younger generations that will have to deal with the effects of reunification the most, and this is why it's important to gain their support for the process. To do this, reunification should not be focused solely on the legal, political, and economic fronts, but also on the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of the countries. It needs to be a consistent policy. From the United States' side, the amount of modernization and reconstruction the US will be involved in will be sizeable. As the reunification process will no doubt be long and arduous, it is important to also gain the awareness and support of the youth in America. A unified Korea will need to be as stable as it possibly can, so the younger generations' willingness to work hard to achieve that stability is invaluable. It is only with the support and

hard work of the people that a unified Korea will succeed, so it's immeasurably important to have the support of all involved.

References:

Jimmy Kimmel Live, How Many Americans Know Where North Korea Is?
2017년 8월 8일, <https://www.youtube.com/watch?v=-ugJZhL-cbc>

발표 4 | Presentation 4
중국 | China

유효연 LIUXIAORAN
이화여자대학교

제가 처음 북한에 관한 정보를 접한 것은 중학교 때였습니다. 저는 매우 국제화 된 중학교를 다녔던 터라 한국에서 온 친구들을 처음으로 만나볼 수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남한과 북한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생김새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조선족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대다수의 한국 학생들은 모두 화를 내며 자신들은 한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남북한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북한과 우리나라[중국]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으로 고등학교 때 첫 한국 여행을 가게 되었고, 그때 처음 38선(휴전선)을 방문해 한걸음 떨어져 있는 북한을 조망하고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를 관람했습니다. 이때 저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경제-정치상의 격차에 대해 알게 되고, 탈북자의 처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창을 통해 북한에서 온 친구를 한 명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가난할 것이라는 제 생각과 달리 그 친구는 명품을 입고 아이폰까지 쓸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중국인, 한국인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제 기억에 그는 한국인들과 잘 어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도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온 후에는 대학의 교육 과정을 통해 북한의 상황과 한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더욱 상세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고, 주변 친구들도 북한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으며, 더 이상의 평가도 없습니다. 특히 지도자에 대한 평가에 민감해 김정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비방하는 뉴스는 인터넷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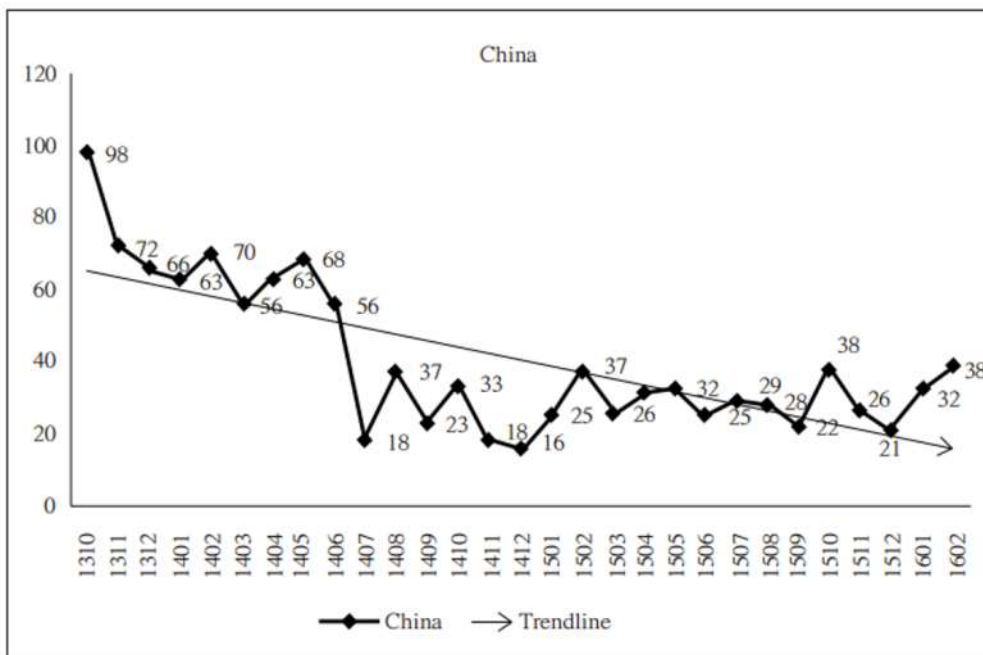


Figure 1. Monthly Number of News Reports of China by KCNA
Source: KCNA (October 1, 2013-February 29,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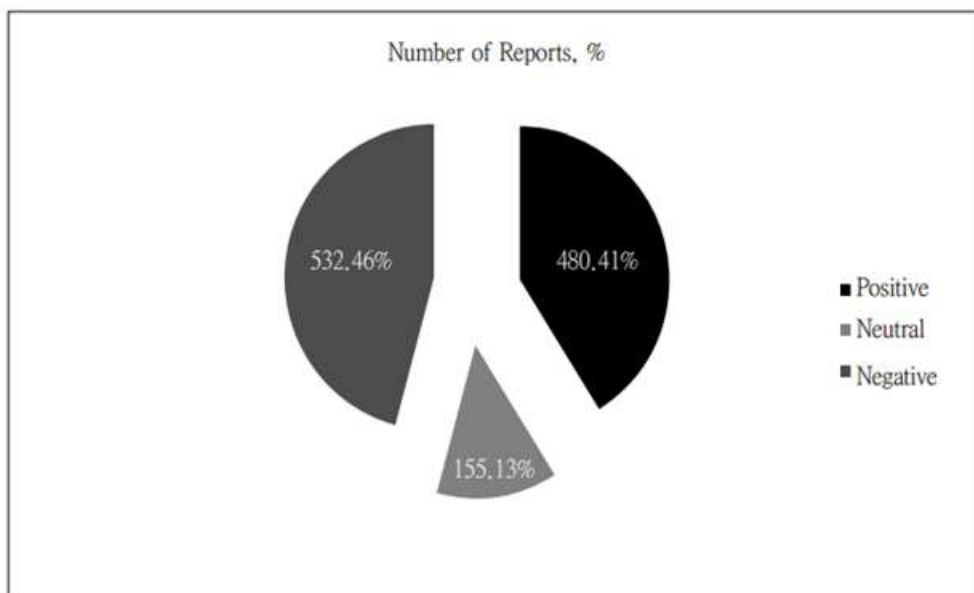


Figure 2. Distribution of Types of News Reports on China
Source: KCNA (October 1, 2013-February 29, 2016)

Picture(s) Source: Debin Zhan (2016),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8 No. 2 pg. 207-209.

제 학창시절 기억 속에서 한국전쟁의 기원과 분열은 미국의 도발과 간섭 때문이었고, 또한 그로 인해 오늘날의 국면이 초래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그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국가별로 저마다의 견해와 이념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분단으로 인해 중국 동북지방에 대량의 난민, 즉 오늘날의 조선족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친인척과 고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전쟁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북한에서 중국과 한국으로 도망쳐서 지금까지 다시는 그 땅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한국인과 조선족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중국에 있어 북한이 갖는 유일한 의미는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전략적 완충지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미국의 군사세력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한, 대규모 난민 유입을 우려해 김씨 정권에 실질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을 꺼려 왔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 다른 결론과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으로서는 통일된 한반도를 동맹국과 주요 경제 파트너로 확보함으로써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전략적 지점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주변 환경과 동북아 정세를 크게 변화시키며, 동북아 경제의 일체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최선의 길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외교적, 경제적 성공은 한반도에서 얻는 어떤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면 한반도 통일은 중국에게 바람직한 방향이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수중에 있는 권력을 포기하고 남한에 귀속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인들도 계속 견지해 온 민주주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70년에 이르는 분단으로 남북한 주민들은 이미 사상적으로 각기 다른 두 나라의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젊은이들 대부분은 통일에 대한 기대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남북한 지도자들이 만나면서 남북한 사람들의 감정과 문화의 교류가 촉진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만은 아니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Source: The New York Times, 2018

<https://www.nytimes.com/2018/04/26/world/asia/korea-kim-moon-summit.html>

이상은 비공식적 입장을 기술한 것으로, 개인 및 주변 인사의 비전문적이고 주관적인 방법으로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When I was in middle school, I had access to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for the first time. Given that I was enrolled in an international middle school, I was able to meet friends from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and I did not think that there was a big differenc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is is because both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s use the same language, and they are similar in terms of appearance. Hence, I asked them if they were ethnic Koreans from China. The majority of the Korean students were angry upon listening to my question and responded that they are Koreans.

When I was young, I did not have a clear idea on the past of the two Koreas, and I was only aware of the amicabl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ereafter, with my love for the Korean culture, I embarked on my first trip to Korea in high school. It was also my first time visiting the 38th parallel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viewing North Korea that was just one step away from South Korea, and watching documentaries pertaining to North Korea. I was greatly shocked. During that period of time, Kim Jong-Il was ruling North Korea, and through the documentaries, I had learnt about the economic-political disparity as well as the degree of danger undergone by the North Korean defectors.

Following, I got to meet a North Korean individual through my classmate after some time. Contrary to my belief that North Koreans are poor beings, the North Korean individual I had met was affluent, dressed in luxury clothes and even owned an iPhone. Although the North Korean individual I had met did not look different from Chinese and Koreans, he did not seem to blend in well with South Koreans according to my memory. Overtime, the North Korean individual and I lost contact.

Currently, after coming to South Korea, the university's curriculum allowed me to gain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as well as how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has come to this point. When I was in China, there were not many opportunities for me to gain access to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and friends around me were neither interested nor aware of North Korea. Furthermore, Chinese media rarely addressed the negative news related to North Korea and there was no further assessment done. In particular, Chinese media remained sensitive to the evaluation of the North Korean leader, and there was almost no news of criticizing or slandering Kim Jong-Un on the inter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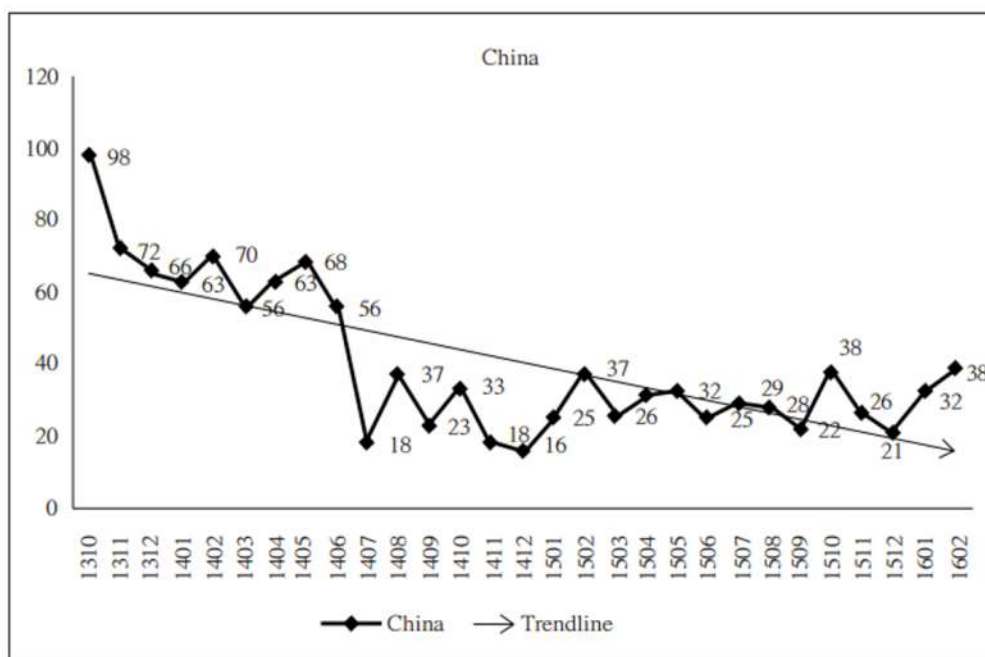


Figure 1. Monthly Number of News Reports of China by KCNA
Source: KCNA (October 1, 2013-February 29,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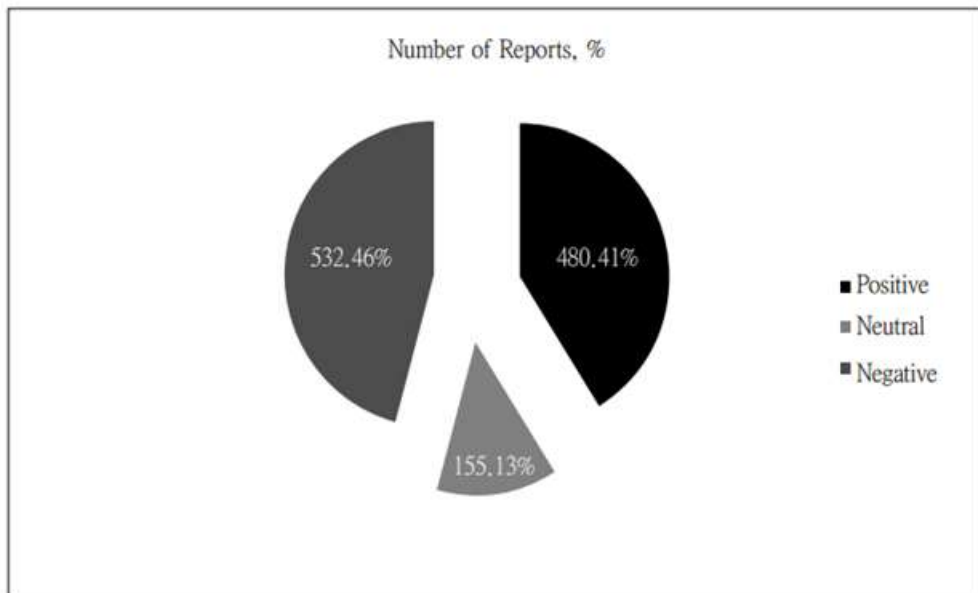


Figure 2. Distribution of Types of News Reports on China
Source: KCNA (October 1, 2013-February 29, 2016)

Picture(s) Source: Debin Zhan (2016),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8 No. 2 pg. 207-209.

According to my schooling days, I recall the origin and division of the Korean War as a result of the provocations and interference of the United States, which also led to today's Korean situation. Although it was only when I came to South Korea that I could have a closer look into the Korean history, it is inevitable for each country to have its own perspective and ideology. Following the divis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re was an influx of refugees into northeastern China, who are now recognized as Korean immigrants living in China. As a result, there were many South Koreans who had lost their relatives and hometowns. There are many Koreans and ethnic Koreans around me who have said that there is no way for the older generation to return to their homeland, North Korea, after fleeing to China and Sou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The only reason why China and North Korea's alliance withstands

is because it acts as a strategic buffer against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From China's stance, they certainly do not want the North Korean regime to collapse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strength from the U.S. military forces could possibly pressure their way all the way up to the Yalu River. Also, due to the fear that there could be a massive influx of refugees, the pressuring of the Kim regime has been restrained and controlled. However, if a different approach is taken for the Korean Peninsula issue, we may be able to reach different conclusions and solutions.

For China, securing a unified Korean Peninsula as an ally and a major economic partner could cause the U.S. to lose its strategic point of keeping China in check in Northeast Asia. In the long run, this will greatly change China's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nd it will be the best way to fulfil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promoting the unity of the Northeast Asian economy. Hence, the change in China's environment could bring about diplomatic and economic success which is essentially more important than any direct economic benefits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looking forward,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could be highly desirable for China.

However, Kim Jong-Un will neither give up his power and be vested in South Korean issues, nor will the South Koreans give up their democratic policies that they have continuously maintained. Given that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divided for 70 years, North and South Korean individuals have already been diverging ideologically from each other. Furthermore, the majority of young individuals in South Korea have no expectation and interest in reunification. However, I believe that reunification will not be as challenging in the near future as the respective leaders of the two Koreas have been interacting in recent years in order to promote emotional and cultural exchanges.



Source: The New York Times, 2018

<https://www.nytimes.com/2018/04/26/world/asia/korea-kim-moon-summit.htm>

|

Until here is an unofficial disclosure of an individual's perspective, so it should only be referred to in a non-professional and subjective manner.

第一次接触北韓的信息还是从我初中的时候开始，因为我的学校是一个非常具有国际化的学校，所以我初中的时候第一次接触了韩国来的同学。记忆里的南韩和北韓似乎没有多大的差别，因为他们说着同样的语言，长的也差不多。所以那个时候还会问他们的民族是不是朝鲜族？韩国同学听到了，大多都会很生气地告诉我他们是韩国人。

所以我小时候，我并不太清楚韩国和朝鲜的历史问题，只知道朝鲜和我们国家的关系很好而已。后来由于对韩国文化的喜爱，我在高中的时候第一次去了韩国旅行。并且第一次去了韩国的38线，参观了一步之遥的朝鲜，并且观赏了关于朝鲜的纪录片。这让我受到了很大的冲击，那个时候还是金正日统治地朝鲜时代。通过纪录片使我了解到南北韩的经济差距以及政治上的差距。也让我了解到了脱北者的处境是有多么的危险。

可是后来我通过同学认识了一位来自朝鲜的同学，我印象中的朝鲜人应该过的很穷，可是那位同学就看起来非常富有，不仅穿名牌还用iPhone。看起来和中国人和韩国人没有什么差别，不过据我所知，他不怎么和韩国人一起玩。后来随着时间的推移，我们也就没有联系了。

现在，我来到了韩国之后，通过大学里的课程更加详细了解了北韓的情况以及和韩国的关系是如何发展到现在的。在中国我并没有很多机会去了解北韓的信息，周围的朋友也对北韓并不是很关心和了解，除了政治上的一点接触之外我们更多了解的是韩国的文化和生活。在中国也基本并不怎么报道关于北韓的负面新闻，不去做更多的评价。特别是对领导人的评价非常敏感，所以基本不会在网上搜到有关金正恩的负面评价以及诋毁信息。

在我过去学生时代的印象里，韩国战争的起源以及分裂的原因都是由于美国的挑拨以及参与才导致今天局面。直到来到韩国后，我才仔细的去了解这一方面的历史，只能说各个国家都有各个国家的见解和自己的意识形态。由于分裂，中国东北地区始入大量的难民，也就是今天朝鲜族。也导致不少韩国人失去了自己的亲人和以往的故乡。我身边不少的韩国人和朝鲜族，他们告诉我，在战争年代自己的爷爷奶奶是从北韓逃到中国和韩国的，但至今都无法再次回到那片土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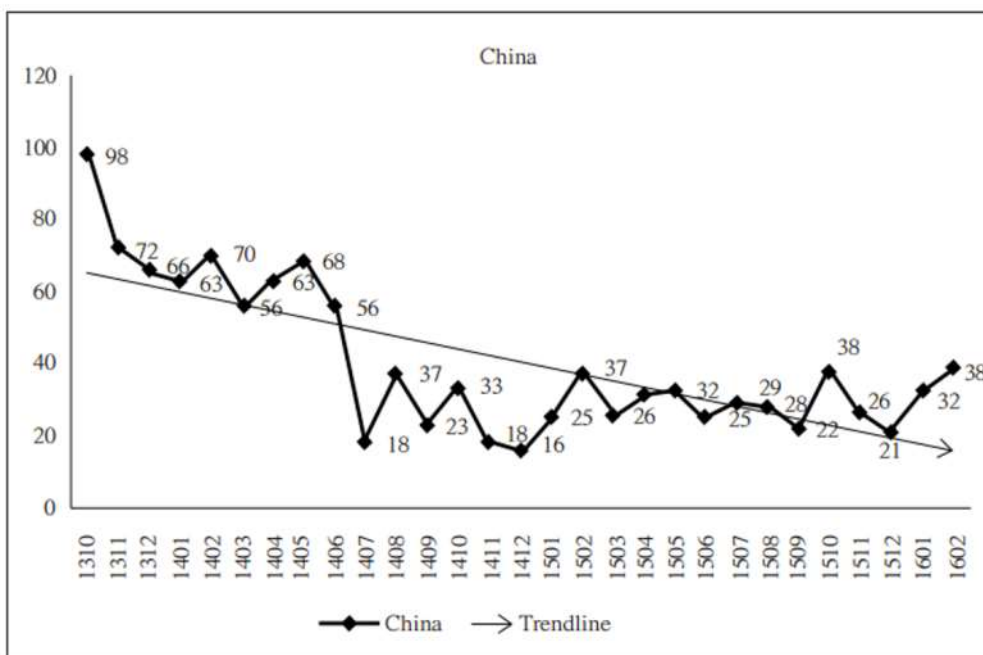


Figure 1. Monthly Number of News Reports of China by KCNA
Source: KCNA (October 1, 2013-February 29,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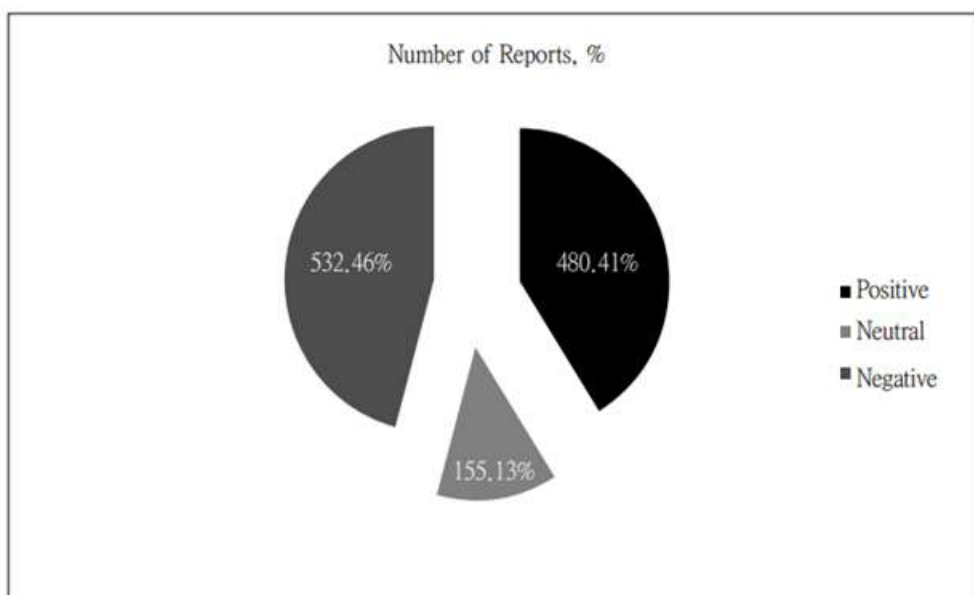


Figure 2. Distribution of Types of News Reports on China
Source: KCNA (October 1, 2013-February 29, 2016)

Picture(s) Source: Debin Zhan (2016),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8 No. 2 pg. 207-209.

今天的朝鲜对于中国的唯一意义在于对韩美军事同盟的战略缓冲。中国不希望朝鲜现政权崩溃，一方面不希望美国的军事势力推进到鸭绿江边，同时也担心可能出现的巨大难民潮，所以中方一直不愿意对金家政权施加实质性的压力。不过，如果我们换一个角度来思考朝鲜半岛问题，或许可以得到不同的结论和解决问题的方法。

对于中国而言，获得一个统一的朝鲜半岛为盟友和重要经济伙伴，将使美国失去一个在东北亚制约中国的战略支点，这将长远的改变东北亚的局势，极大的改变中国的周边环境，促进东北亚经济的一体化进程，也是实现朝鲜半岛无核化的最佳途径。这些变化所带来外交和经济成功，比从朝鲜半岛获得的任何直接经济利益更加重要。所以，长远的来看，也许统一会是一件不错的方向。但是目前来看，金正恩并不会放弃自己手中的权力而去归属韩国，韩国人民也不会放弃一直坚持的民主主义政策。70年的分离，南北韩两国的人民已经从思想上渐渐的变成两个国家的人。甚至韩国的大部分年轻人已经对统一不抱任何期待，也并不关心。但是近几年随着南北韩两国领导人的会晤，也促进了南北韩两国人的情感交流和文化交流，我相信在不久的将来，统一也许不再是一件非常困难的事。



Source: The New York Times, 2018

<https://www.nytimes.com/2018/04/26/world/asia/korea-kim-moon-summit.html>

以上陈述非官方立场，仅作为个人以及周边人士非专业及主观看法，仅供参考。

발표 5 | Presentation 5
러시아 | Russia

Nadezhda Kim
연세대학교

서론:

의심할 여지없이,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전 세계의 사람들의 관심은 한반도에 고정되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첫 북·미 회담을 가졌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번 회담의 결과는 양측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이 지역의 굳건한 평화를 위한 공동 작업과 관련된 이슈들을 목표로 포괄적이고 성실한 회담을 했기 때문에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2019년 베트남에서 열릴 다음 정상회담의 성공을 모두가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높은 기대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정상회담만큼 번영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제재 종료 요청으로 회담이 갑자기 끝나야 한다고 백악관이 발표하면서 모든 희망이 무너졌고, 결국 아무런 합의도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람들은 조만간 또 다른 정상회담이 열릴지 궁금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와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김정은이 또 한번의 회담에 나설 의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6월 탈북자들이 풍선을 이용해 대북 전단 살포를 한 후 북한이 남한과 북한의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소식에 언론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더구나 최근 며칠 사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회담 제의 결의를 외면했다는 뉴스는 국가 간 유대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징후를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통일의 현실은 변함없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로서 러시아 연방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대체로 통일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반도의 평화 과정에 접근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러시아와 한국의 입장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한국/러시아-북한 관계:

한국 문제와 통일이 러시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여론에 잠입하기 전에 러시아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올해는 러시아와 한국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러시아 국회에서 연설한 첫 번째 한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한국 정상의 방문 기간 중 자유무역지역 기반구축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지도부는 특

히 러시아 극동지역에 있어서 러시아의 7번째 교역 상대국인 한국을 가장 큰 경제 파트너이자 투자 국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070504/8437889/1>

러시아는 또한 구 소련 국가들에 약 400,000에서 500,000명의 고려인(러시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한반도에 묶여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같은 나라들은 고려인이 가장 많은 나라들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2020년 러시아와 북한이 수교 72주년을 맞이합니다. 북한은 항상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파트너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두 나라 사이에 점점 더 많은 의견 불일치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모든 러시아은행에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단체와의 금융거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더구나 러시아는 중국이 24억 3,000만 달러로 2018년 북한 무역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북한 무역 총액은 2017년보다 56% 감소한 3,400만 달러에 그치는 등 중국에 대한 북한 최대 교역국 지위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ZhrpyXVTtGs>

김정은은 2019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미국과 이전 회담과 나아가 러시아-북한 관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블라디보스토크 정상 회담을 큰 변화나 발전이 없는 반핵 적인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와 한반도는 인접국가로, 이는 남북한을 향한 러시아의 입장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한반도에서 지난 70년간 존재해온 갈등의 근원을 없앨 수 있는 한국의 통일입니다.

통일의 장단점과 여론의 의견:

통일 문제에 대한 러시아 여론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인구가 그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론은 단지 국가의 국익에 기초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반도 통일이 단점보다 장점을 가져다준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대개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와 그 결과에 대한 모스크바의 입장은 러시아의 국익에 의해 결정되는데, 당연히 러시아의 극동 국경 근처의 긴장의 온상 제거와 좋은 이웃의 관계를 유지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에 준비된 미래의 통일된 한국의 출현에 책임이 있습니다.

미래 외교정책의 전망과 관련해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한국 국가를 통일시켰고, 다른 나라와의 군사 정치적 동맹에 참여했으며, 이러한 동맹의 방향은 러시아를 통일 전망에 대해 신중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구 7천5백만 명의 통일한국 이웃국가로서 미국의 지배적인 영향권 하에 있으며 특히 자국의 영토에 있는 미군과 세계 미사일방어체계의 구성요소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미일-한-일-정치 동맹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감안할 때 이는 우리 동부 국경에서 나토의 아시아 복제국이 출현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러시아는 결코 한국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지만 한국 전체가 비우호적인 러시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황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러시아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에 중립적인 비동맹 국가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보존을 주장하면서 서울 일부의 약속보다 더 매력적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추가적인 화해와 양국간의 관계 개선은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하며, 솔직히 말해보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익합니다. 첫째, 러시아는 남북관계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해 주로 발생되고 있는 극동 국경의 긴장감을 바로 제거하는데 확실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로, 역사는 한반도와 주변의 긴장감과 남북관계의 기복이 러시아와 한국의 두 국가가 객관적으로 관심을 갖는 여러 다자간 경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시베리아횡단철도에 접근해 한반도 전역을 가로지르는 단일 철도 노선을 만들고, 러시아에서 북한 영토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가는 송유관 송전선로를 깔고,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 노동자들의 강점을 함께 참여하여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다른 경제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극동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계획과 아태지역 경제공간으로의 통합과 관련이 컸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의 이행은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0년간 한반도에 존재해 온 대립의 수준을 감안할 때 최고 수준에서 거듭 확인된 정치적 합의조차 이 점에서 통하지 않고 수많은 의향서가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나진 항 터미널 1곳과 이 항구와 러시아 영토를 연결하는 철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3자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 전문가들에 의해 그 자리에서 여러 차례 검토되었고 러시아의 주장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은 거듭된 약속과 달리 참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는 이러한 사업들이 이행되면 참가국들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에 더해 상당한 정치적 차원이 있다는 사실에 북한과 한국의 관심을 거듭 끌어왔습니다. 그들 사이

의 협력 심화와 그에 따라 한반도에 데탕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정상화로 인해 국가안보와 러시아의 경제계획 모두 득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남북 정상회담의 새로운 만남을 가져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재 체제와 그 강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지는 러시아의 경제적 또는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의 모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어떤 식으로든 수익화나 이용이 불가능한 미국의 일부 신화적인 승인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배당을 하지 않고 북한 지도부를 러시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2017년 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조건은 러시아에 의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참여나 불참을 위한 보다 명확한 조건을 논의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북-미 협상의 상황을 가상적으로 유리하게 전개하고, 제재가 약화되고, 핵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개방'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 한국, 미국 기업에 주로 배당금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 시기의 러시아의 이중 정책을 감안할 때 북한 주민들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주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Trade statistics for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Monthly, quarterly and yearly trade data, import & export values, volumes, growth rates, market shares, etc.

“북·러 무역도 ‘급감’...2월 수출 8천 달러”

More

Mr. Jiha Ham

English

Product: TOTAL - All products

Country: Russian Federation

Partner: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other criteria: Imports | Monthly time series | by product | At the same level (2 digits) | Values | US Dollar

Product Group: None

Country Group: None

Partner Group: None

Bilateral trade between Russian Federation and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Product: TOTAL All products

Table

Graph

Map

Comparisons

Russian Federation's imports from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s exports to world													
Product code	Product label	Value in 2019: M03	Value in 2019: M04	Value in 2019: M05	Value in 2019: M06	Value in 2019: M07	Value in 2019: M08	Value in 2019: M09	Value in 2019: M10	Value in 2019: M11	Value in 2019: M12	Value in 2020: M02	Value in 2019: M03	Value in 2019: M04	Value in 2019: M05	Value in 2019: M06	Value in 2019: M07	Value in 2019: M08	Value in 2019: M09	Value in 2019: M10	Value in 2019: M11	Value in 2019: M12	Value in 2020: M01	Value in 2020: M02	Value in 2019: M12	
TOTAL	All products	156	142	170	128	605	188	142	305	153	721	140	8													20,177
39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0	0	1	0	0	0	0	31	0	0	0	5													783
29	Organic chemicals	0	0	1	0	0	0	0	0	0	0	0	1													338
73																										481
95																										147

“북한 2월 러시아 수출...8천 달러 규모”

VOL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BX8pB19aFKA>

러시아에 중요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통일의 평화적 혹은 강압적 방식이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장기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강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것들의 예는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유고슬라비아, 시리아입니다. 학자들은 남북통일의 핵심 결정요인은 북한이 어느 정도 근대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무능함 이라고 주장합니다. 러시아의

젊은이들과 구세대들 모두 이웃한 두 국가들간의 큰 정치적, 경제적 차이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러시아는 지역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경제적 유대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있다면 큰 이점을 얻게 되지만 또 다른 전쟁의 발발은 결코 피하고 싶어합니다.

결론:

현재로서 러시아 국민들은 한반도 통일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통일이 곧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전쟁도 평화도 없다"는 현재의 상황은 러시아에 가장 유리합니다: 부진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위기도 없고, 핵미사일 실험도 없으며, 군사 기동도 없으며, 이 지역에서 미국을 위한 새로운 전략자산의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은 점진적일 뿐이라는 냉철한 평가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의 유연성과 신중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출처:

Diplomat, Niall Gray for The. "Did Kim's Vladivostok Visit Reshape Russia-North Korea Relations?" - The Diplomat, For The Diplomat, 1 Apr. 2020, <https://thediplomat.com/2020/04/did-kims-vladivostok-visit-reshape-russia-north-korea-relations/>

Kapoor, Nivedita. "Russia-South Korea Relations: Prospects and Challenges." ORF, 15 June 2020AD, www.orfonline.org/expert-speak/russia-south-korea-relations-prospects-challenges-67837/.

Blank, Stephen. "Putin and Kim's Vladivostok Summit: What Did We Learn?" Jamestown, 6 May 2019, <http://jamestown.org/program/putin-and-kims-vladivostok-summit-what-did-we-learn/>

Sung Young Jang & Hansol Kim for The Diplomat. "Can Russia Play a Positive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Diplomat, For The Diplomat, 1 Dec. 2018, <https://thediplomat.com/2018/12/can-russia-play-a-positive-role-on-the-korean-peninsula/>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The White Hous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18 June 2018, 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joint-statement-president-donald-j-trump-united-states-america-chairman-kim-jong-un-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singapore-summit/

Herald, The Korea. "South Korea's Unification Minister Meets Russian Ambassador Ahead of Kim-Putin Summit." The Korea Herald, 22 Apr. 2019, www.koreaherald.com/view.php?ud=20190422000847.

Жебин, А. З. РОССИЯ И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22 June 2018.
Толорая, Георгий. "Аналитика." Клуб "Валдай", 11 July 2019, <https://ru.valdaiclub.com/a/highlights/situatsiya-na-koreyskom-poluostrove/>

Introduction:

Undoubtedly, after the 2018 talks in Singapore, people's attention around the globe was riveted to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n Chairman Kim Jong Un and President Donald Trump held the first-ever meeting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scholars, the talks' outcome was fruitful as both sides conducted a comprehensive, sincere meeting aiming at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and, of course, joint work towards a robust peace in the region. Everyone was looking forward to the next possibly successful summit in Vietnam in 2019. But the high expectations were not realized; the Vietnam summit was not as prosperous as the Singapore summit. All hopes collapsed when the White House announced that the talks had to abruptly end (due to North Korea's request to end all sanctions), and eventually, no agreement was reached. For the past year, people have been wondering whether another summit would be happening any time soon. However, with the recent events happen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United States, it is highly questionable whether Kim Jong Un would be willing to go for another round of talks. As all of you might know, in June 2020, the media was struck by the news that North Korea had blown up a joint liaison office used for talks between itself and the South after a group of defectors used balloons to send anti-North Korean leaflets. Moreover, in recent days, the news claim that Kim Jong Un turned away Trump's determination for another suggestion to meet, showing the sign that ties between the nations are rapidly deteriorating. Nevertheless, the reality of a future reunification remains constant, and the Russian Federation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as one of North Korea's closest allies. In general, Russia holds a positive stance towards the reunification issue.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Russia's and South Korea's stances are very similar in approaching the peninsula's peace process and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aid Russia's Ambassador to South Korea Andrey Kulik during the meeting with the Unification Minister Kim Yeon-chul.

Recent Russia-South Korean/Russia-North Korean relations:

Before diving into Russian people's public opinion on the Korean issue and possible influence of the reunification on Russia, it is logical to analyze Russia's relations with the South and the North. This year, Russia and South Korea will celebrate the 30th year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recent years,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paid a state visit to Russia and became the first South Korean president to give a speech in the Russian Parliament. President Vladimir Putin and Moon Jae-in signed a document for the free trade area's foundation during the South Korean leader's visit in 2018. The leadership in Moscow sees South Korea as one of the biggest economic partners and investors, especially for the Russian Far East, as it is the seventh-largest trade partner of Russia. South Korea and Russia are also participants in the Six-party talks on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Source: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070504/8437889/1>

Russia is also ethnically tied to the Korean Peninsula as approximately 400 000 to 500 000 Koryo-saram (ethnic Koreans living in Russia use to call themselves) reside in the former USSR countries. Countries like Uzbekistan, Russia, and Kazakhstan count the largest number of Koryo people.

As for the North, Russia and North Korea in 2020 will celebrate the 72nd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North Korea was always considered Russia's closest ally and partner. However, in recent years, we can witness more and more disagreement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2016, after another North Korean nuclear test, Russia supported the UNSC resolution on furthe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the same year, the Central Bank of Russia demanded from all Russian Banks to stop financial dealings with North Korean organizations that were on the UN sanctions list. Moreover, Russia loses its position as North Korean largest trade partner to China, as China ranks the number one North Korean trade partner in 2018 with the \$2.43 billion, while Russia-North Korean trade totalled only \$34million – 56% decrease from 2017.



Source: <https://www.youtube.com/watch?v=ZhrpyXVTtGs>

In 2019, Kim Jong Un met with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to discuss the previous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and further Russia–North Korean relations. Many scholars have regarded the Vladivostok summit as anticlimactic, without major changes or developments.

In general, Rus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re neighbouring countries, and this is a substantial factor in Russian stance towards two Koreas. Russia is sincerely interested in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one possible way of reaching the goal is the Korean unification, which may, in the long run, eliminate the source of conflict that has been existing on the Peninsula for the past 70 year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reunification and public opinion:

The Russian public opinion towards the reunification issue does not have a significant gap between the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That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Russian population is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process; our public opinion is only based on the country's national interest. If this reunification brings more advantages than disadvantages, no matter the age, people usually have positive thoughts towards the issue. Moscow's position regarding inter-Korean rapprochement and its possible results is determined by the national interests of Russia, which, of course, is responsible for the elimination of the hotbed of tension near the Far Eastern borders of Russia and the emergence of a united Korea in the future, ready to maintain relations of good neighbourliness and cooperation with Russia.

The continuing high degree of uncertainty regarding the nature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future united the Korean state, its participation in military–political alliances with other countries, and the direction of

such alliances force Russia to be cautious about the prospects for unification. Russia is unlikely to be satisfied with the emergence as a neighbour of a united Korea with a population of 75 million people, which is under the predominant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and especially with American troops and components of the US global missile defense system on its territory. Given US efforts to create a US-Japan-South Korea military-political alliance in the region, this would be tantamount to the emergence of an Asian clone of NATO on our eastern borders. Russia never sought to gain a dominant influence in Korea but tried to prevent a situation where all of Korea would be influenced by one unfriendly-Russia, state. In light of these factors, the DPRK's proposals for the creation of a neutral non-aligned state in Korea look (in terms of ensuring the security of Russia) more attractive than the commitment of some circles in Seoul, advocating the preservation of the American military presence in Peninsula even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

The further rapprochement of the two parts of Korea and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them are extremely important for Russia and, frankly, beneficial for two reasons. First, Russia is certainly interested in eliminating a hotbed of tension right at its Far Eastern borders, which was largely generated and fueled by the abnormal state of inter-Korean relations. Secondly, history has shown that the ups and downs in inter-Korean relations, the spurts of tension on and around the Peninsula, have become serious obstacles to implementing a number of multilateral economic projects in which Russia and two Korean states are objectively interested. First of all, it is about creating a single railway line across the entire Korean Peninsula with access to the Trans-Siberian Railway, laying pipelines and power lines from Russia to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territory of the DPRK, and about implementing other economic projects in the regions of Siberia and the Far East involving South Korean technologies and North Korean workers strength.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rojects

is very important for Russia since it was largely associated with plans for further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nd its integration into the Asia-Pacific region's economic space. It turned out that, given the level of confrontation that has existed on the Peninsula for the last decade, even political agreements repeatedly confirmed at the highest level do not work in this regard, and numerous memorandums of intent remain only on paper. The most obvious example of this is the failed participation of South Korean companies in a tripartite project to jointly use one of the terminals in the North Korean port of Rajin and the railway connecting this port with Russian territory. Despite the fact that the project was several times examined on the spot by South Korean experts and, at the insistence of Russia, did not fall under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the South Korean side, contrary to repeated promises, refrains from participating in it. Meanwhile, Moscow has repeatedly drawn the attention of Pyongyang and Seoul to the fact that these projects, in addition to undeniable economic benefits, have a significant political dimension, since their implementation could help to strengthen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between their participants, especially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them and thereby promote detente on the Peninsula. So, both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and Russia's economic plans will benefit from the normaliz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which will hopefully bring a new meeting at the top of the North and South of Korea.

On the other hand, worldwide support for the sanctions regime and its strengthening does not meet Russia's economic or strategic interests. This alienates the North Korean leadership from Russia, without bringing real dividends, except for some mythical approval from the United States, which is still impossible to monetize or use in any other way, because the contradictions in other areas are too great. The conditions for joining the sanctions regime in 2017 were not sufficiently thought out by Russia; it would be worth discussing more clear conditions for their participation or non-participation in this

regime.

It must be understood that with a hypothetical favourable development of the situation in the US–North Korean negotiations, the weakening of sanctions and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problem, the "opening" of the DPRK will bring dividends not to Russia, but primarily to Chinese, South Korean and American companies. Given Russia's dual policies in the current period, the North Koreans are unlikely to be inclined to give us any preferences.

Trade statistics for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Monthly, quarterly and yearly trade data, import & export values, volumes, growth rates, market shares, etc.

“북·러 무역도 ‘급감’...2월 수출 8천 달러”

Product: TOTAL - All products
Country: Russian Federation
Partner: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other criteria: Imports | Monthly time series | by product | At the same level (2 digits) | Values | US Dollar

Mr. Jiha Ham | English

Bilateral trade between Russian Federation and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Product: TOTAL All products

25 Dollar thousand

Product code	Product label	Value in 2018 M03	Value in 2018 M04	Value in 2018 M05	Value in 2018 M06	Value in 2018 M07	Value in 2018 M08	Value in 2018 M09	Value in 2018 M10	Value in 2018 M11	Value in 2018 M12	Value in 2019 M01	Value in 2019 M02	Value in 2019 M03	Value in 2019 M04	Value in 2019 M05	Value in 2019 M06	Value in 2019 M07	Value in 2019 M08	Value in 2019 M09	Value in 2019 M10	Value in 2019 M11	Value in 2019 M12	Value in 2020 M01	Value in 2020 M02	Value in 2019.1
TOTAL	All products	156	142	170	128	605	186	142	305	153	721	140	8													20,177
39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0	0	1	0	0	0	0	31	0	0	0	5													783
29	Organic chemicals	0	0	1	0	0	0	0	0	0	0	0	1													339
73																										481
95																										147

“북한 2월 러시아 수출...8천 달러 규모”

V.O.A.

Source: <https://www.youtube.com/watch?v=BX8pB19aFKA>

Another interesting point important to Russia is whether the reunification will happen in a peaceful or coercive manner. In recent years, the use of rude military force to solve long-term disputes has gained popularity. Examples of these are Libya, Afghanistan, Yugoslavia, and Syria. Scholars argue that the key determining factor of the kind of reunification the two Koreas will have is North Korea's ability or disability to transform into a more or less modern state. Both the young and old generations of Russia are concerned that another war is inevitable because of the great political and econom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neighboring states. As mentioned above, Russia, because of its geographical proximity with the region and economic ties, gains great advantages if there is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last thing it would want to see is the outbreak of another war.

Conclusion:

As of today, people in Russia do not show much concern about the reunification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It might be because they think that reunification is not going to happen any time soon. Generally speaking, the current situation of "neither war nor peace" is the most favorable for Russia: sluggish negotiations are ongoing, there are no crises, no nuclear missile tests, no military maneuvers, and the emergence of new strategic assets for the United States in the region. And in such a situation, taking into account a sober assessment that its solution, if it can be, is only gradual, we must show the greatest flexibility and prudence so that it is ultimately resolved.

Resources:

Diplomat, Niall Gray for The. "Did Kim's Vladivostok Visit Reshape Russia-North Korea Relations?" - The Diplomat, For The Diplomat, 1 Apr. 2020, <https://thediplomat.com/2020/04/did-kims-vladivostok-visit-reshape-russia-north-korea-relations/>

Kapoor, Nivedita. "Russia-South Korea Relations: Prospects and Challenges." ORF, 15 June 2020AD, www.orfonline.org/expert-speak/russia-south-korea-relations-prospects-challenges-67837/.

Blank, Stephen. "Putin and Kim's Vladivostok Summit: What Did We Learn?" Jamestown, 6 May 2019, <http://jamestown.org/program/putin-and-kims-vladivostok-summit-what-did-we-learn/>

Sung Young Jang & Hansol Kim for The Diplomat. "Can Russia Play a Positive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Diplomat, For The Diplomat, 1 Dec. 2018, <https://thediplomat.com/2018/12/can-russia-play-a-positive-role-on-the-korean-peninsula/>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The White Hous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18 June 2018, 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joint-statement-president-donald-j-trump-united-states-america-chairman-kim-jong-un-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singapore-summit/

Herald, The Korea. "South Korea's Unification Minister Meets Russian Ambassador Ahead of Kim-Putin Summit." The Korea Herald, 22 Apr. 2019, www.koreaherald.com/view.php?ud=20190422000847.

Жебин, А. З. РОССИЯ И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22 June 2018.
Толорая, Георгий. "Аналитика." Клуб "Валдай", 11 July 2019, <https://ru.valdaiclub.com/a/highlights/situatsiya-na-koreyskom-poluostrove/>

발표 6 | Presentation 6
일본 | Japan

스즈 타테노 | 舘野涼
고려대학교 | Korea University

1.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일본인 다테노 스즈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랐지만, 한국 고등학교에 1년 동안 유학한 후 고려대학교에 정규입학했습니다. ‘북한의 문화와 사회’라는 수업에서 탈북민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북한 사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살 때는 핵무기 개발이나 납치 문제 등 북한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접근하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탈북 이주민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북한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네 일상처럼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자유롭게, 또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 일본과 한국, 북한의 관계

6.25전쟁이 휴전 상태로 접어들고, 한국과 일본은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해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습니다. 양국은 그 후에도 정치, 경제, 안정보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는 조약 체결 당시 연 1만 명이었던 양국간 왕래 인원이 2015년에는 일 1만명에 달했다고 보고합니다.

반면 북한과는 여전히 국교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일본 총리로는 역사상 최초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때 조인된 ‘조일평양선언’에서는 국교정상화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성실히 임하겠다는 북한의 결의가 표명되어 있었지만, 국교 정상화는커녕 일본 총리가 북한 땅을 밟을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2002년 9월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왼쪽)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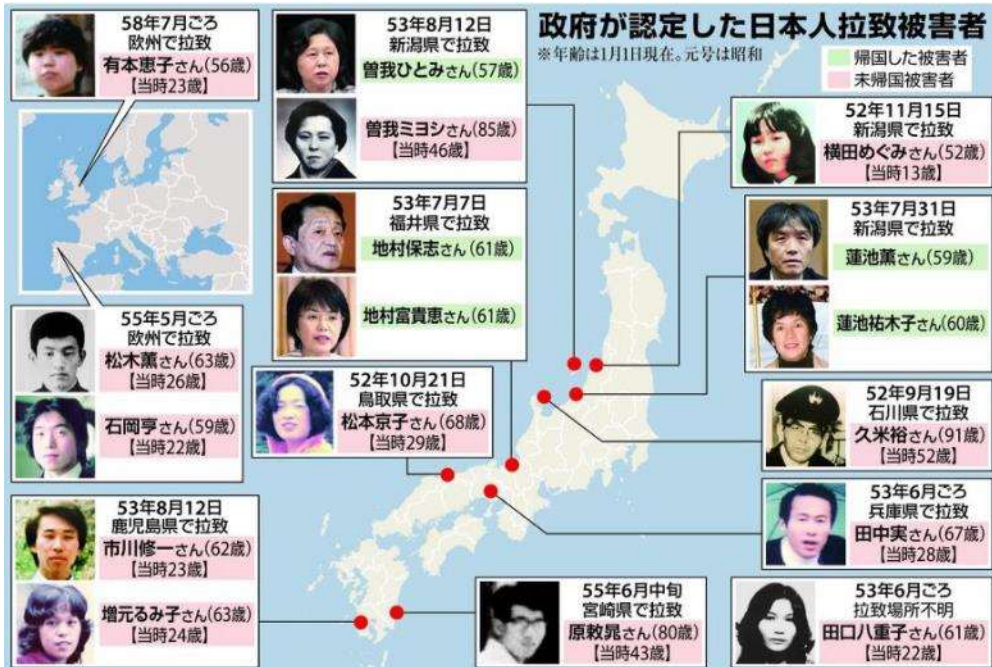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777781.html>

3. 남북통일은 실현 가능한가?

일본 언론에서는 주로 남과 북의 부정적인 측면이나 사건만 보도합니다. 남북문제에 딱히 관심이 없는 일본 입장에서는 임팩트가 큰(대부분 부정적인) 사건이 훨씬 큰 화제를 불러오기 때문이겠지요. 2018년에 내각부에서 진행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인 납치 문제나 핵무기 개발, 미사일 문제가 70%를 웃도는 반면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2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에게 남북통일은 그만큼 낯선 단어인지라 통일 후에 있을 영향을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는 더욱 적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일본 청년들은 애초에 남한과 북한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갖고 있다거나 대립 관계에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며, 과거에는 한 나라였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통일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해도, 일본인 대다수의 관심을 끄는 납치문제, 안보상의 영향 등 한정된 내용에 머물 것이라 예상합니다. 통일 방식이 어떤가에 따라 일본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 납북자들

출처:

<https://medium.com/@oliverjia1014/the-abduction-issue-north-koreas-systematic-kidnapping-of-japanese-citizens-a48ec873bc62>

4. 남북통일은 일본에게 기회인가, 위협인가?

안전보장

우선 남북이 통일을 이루었을 때 일본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문은 안전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이유로 미군이 다수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근거를 살펴보면,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고 극동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군은 일본 시설 및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체결 당시 안보 위협의 구체적인 대상은 구소련이나 중국 등 공산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대상은 북한으로 바뀌었고 정규군을 보유하지 않은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여전히 미국 군사기지가 철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기지의 약 70%는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어서, 일본의 안보에 필요하다고 해도 군대를 한곳에 집중적으로 모아두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북통일이 성사된 후 미국과 북한 관계가 우호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동아시아 안전이 보장된다면 미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줄어들겠지요. 미군기지가 다수 존재하는 이유가 북한의 핵무장이나 군사력 확대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진행되고 미국과 북한이 우호적인 관계를 쌓을 수 있다면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Economist.com

주일미군 현황

경제 문제

한국과 일본은 경제 분야에서도 크게 맞물려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게 일본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며 일본에게도 한국은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큰 무역국가입니다. 만약 이 강력한 경제적 연결고리가 남북통일 후에도 지속된다면 일본에게는 시장 확대라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한반도가 통일한다면(もしも南北統一したら)』을 집필한 변진일 씨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일본의 자원 조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은 철광석이나 석탄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나 브라질에서 수입하는데, 자원을 조달할 곳이 한정된 상황에서 외교 문제가 터지면 크게 타격을 입겠지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자원 공급처를 다양화한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으리라 전망합니다.

또 현재는 일본과 북한을 오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남북통일이 실현된다면 북한으로부터 관광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일본 국민도 북한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코로나 사태 이전) 일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의 비율이 중국에 이어 2위인데, 북한도 비슷한 비율로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면 여행이나 호텔 관련 사업에서 경제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5. 남북통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일본 정부가 명확하게 남북통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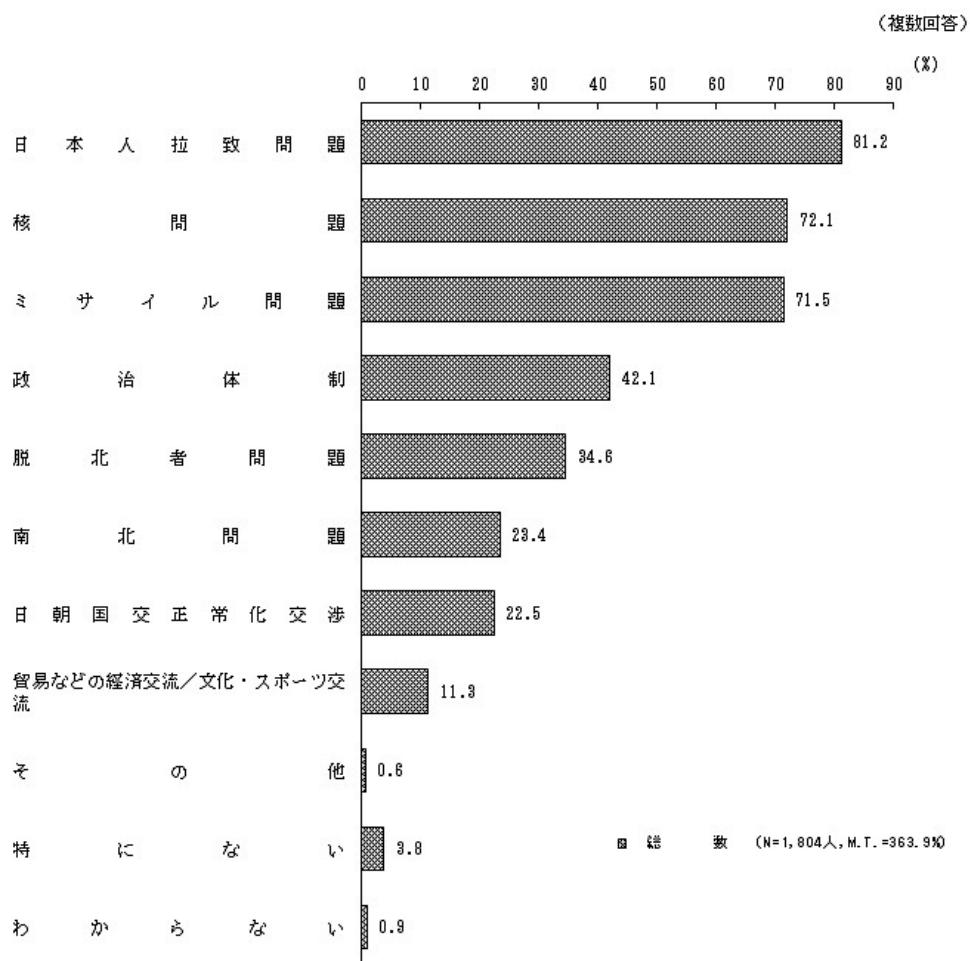
통일에 대해 일본에서 느끼는 존재감이나 영향력은 극히 희박할뿐 아니라 북한이 납치된 일본인들에 대한 약속을 수차례 파기한 데다 핵무기 개발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적으로도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고 아무리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에 우호적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이것이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접근은 북한에서 감추고 있는 의도가 있을 것이며 북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6. 남북통일에 관한 일본인의 견해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일본에서 한반도에 관해 연구하는 일본인 대학원생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도 남북통일은 어려울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 통일을 실현하려면 시장경제가 유지되어야 하고 북한 바깥의 정보를 아는 세대가 늘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일본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 현재 일본 정부는 군비 확장에 총력을 기

울이고 있으므로 북한을 상대로 국교정상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図19 北朝鮮への関心事項



출처: <https://survey.gov-online.go.jp/h28/h28-gaiko/zh/z19.html>

1. Self-Introduction

Hello, my name is Tateno Suzu, I am Japanese, and I am currently attending Korea University. I was born and raised in Japan, however I studied for a year at a Korean high school and ended up attending Korea University. There was a class called, 'North Korea's Culture and Society' where I had the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for the first time I started to become interested in North Korean society. When I lived in Japan, I had a really negative image about North Korea such as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the abduction issue, however after listening to the explanation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 learned that people in North Korea are living normal lives just like us. I wondered what I could do to help them live freely.

2.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ended in a truce, South Korea and Japan signed a Korea-Japan Basic Treaty in 1965 to normalise diplomatic relations. Since then, the two countries have strengthened their relationships in various areas including politics, economics and security.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website reports that the number of people travel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reached 10,000 people per day in 2015; whereas at the time of the treaty 10,000 people travelled per year.

On the other hand, diplomatic relations have not yet been achieved with North Korea. In September 2002, former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was the first Japanese Prime Minister to visit Pyongyang and hold a meeting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At that time, the signed 'Jo-Il Pyongyang Declaration' expressed North Korea's determination to faithfully implement diplomatic normalisation as soon as possible. But instead the chance for the Japanese Prime Minister to step on North Korean land, let alone normalise diplomatic relations, never came again.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and Kim Jong Il

Source: <http://www.hani.co.kr/arti/777781.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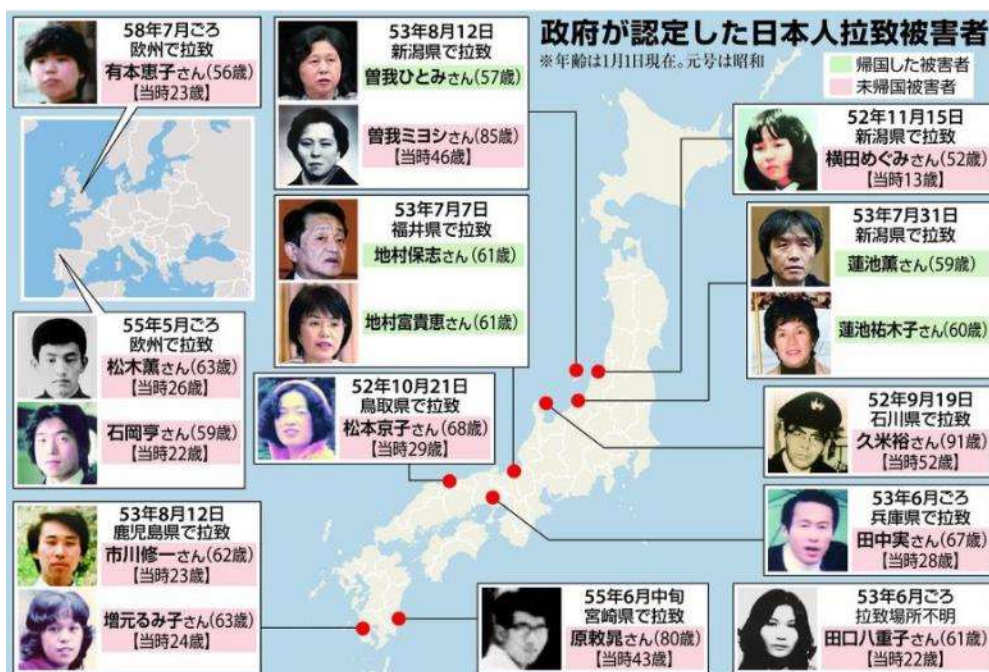
3. Is Reunif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Possible?

The Japanese media mainly reports, only, the negative aspects and events of the North and South. This is probably because in Japan, where they are not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Inter-Korean issue, incidents that have bigger and mostly negative impacts will be discussed mo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Interest Survey on North Korea', conducted by the Cabinet in 2018, the issues regarding the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exceeded 70%, whilst issues regarding the North and South remain within the 23% range.

For most Japanese people, inter-Korean reunification is a strange word, therefore there will be fewer opportunities to seriously consider the impact of reunification. In particular, Japanese youth these days only know that the North and the South have different political ideologies and that they are in conflict. Many people do not even

know that they were one country in the past.

Even if there is a summit to discuss reunification, we expect it to remain limited due to the abduction issue and security implications that attracts the attention of the Japanese majority. I think the impact on Japan will vary considerably depending on the way reunification is done.



Japanese citizens abducted by North Korea

Source:

<https://medium.com/@oliverjia1014/the-abduction-issue-north-koreas-systematic-kidnapping-of-japanese-citizens-a48ec873bc62>

4. Is Reunification an Opportunity or a Threat for Japan?

Security Guarantee

Firstly, I think that the sector that greatly affects Japan when the two Koreas achieve reunification is security. In Japan, there are a number of U.S. troops that are stationed because of the U.S.-Japan Security

Treaty. The basis of the U.S.-Japan Security Treaty states that “the U.S. military will be able to use Japanese facilities and zones to ensure the safety of Japan and maintain peace in the FarEast”. But at the time if the signing the specific targets were communistcoun tries such as China. However, with the end of the ColdWar, the target changed to North Korea. As Japan does not have regular troops, they had no choice but to rely on the U.S. military forces hence the U.S. military bases have not been withdrawn. In Japan, there are many voices that oppose the U.S. military bases. Approximately, 70% of the U.S. military bases in Japan are concentrated in Okinawa, so many people think that it is discriminating to only concentrate troops in one place, even if it is necessary for Japan’s security.

However, if the security of East Asia is guarante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U.S.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 will be favourable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fewer people will think that the U.S. military base is needed. The reason for the large number of U.S. military bases is so that they are prepared for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or military expansion. But if denuclearisation proceed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 and North Korea can build friendly relations, there is a possibility for the U.S. troops to withdraw.



Economist.com

US military presence in Japan

The Economic Aspect

Korea and Japan are also very much connected economically.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Japan is the third most important trading partner for Korea after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for Japan as well, Korea is the third trading partner after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f this strong economic link continues even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Japan will have the potential to expand its market.

Byun Jin-il, who wrote “If the Korean Peninsula Reunifies,” says North Korea, which has abundant underground resources, would be a great help to Japan. Currently, Japan imports iron ore and coal from Australia and Brazil which are on the other side of the globe, but with these limited resources, a diplomatic issue would cause a lot of damage. So, if we could diversify our resources a little bit, we would be able to reduce that risk.

Also, we cannot travel between Japan and North, but if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happens, we can expect an influx of tourists from North Korea, and the Japanese people will be able to set foot in the North as well. Currently (before Covid-19), the proportion of Koreans entering Japan is second only to China, and if North Korea visits Japan at a similar rate, we will expect economic benefits from travel and hotel-related businesses.

The Japanese Government's Position on Korean Reun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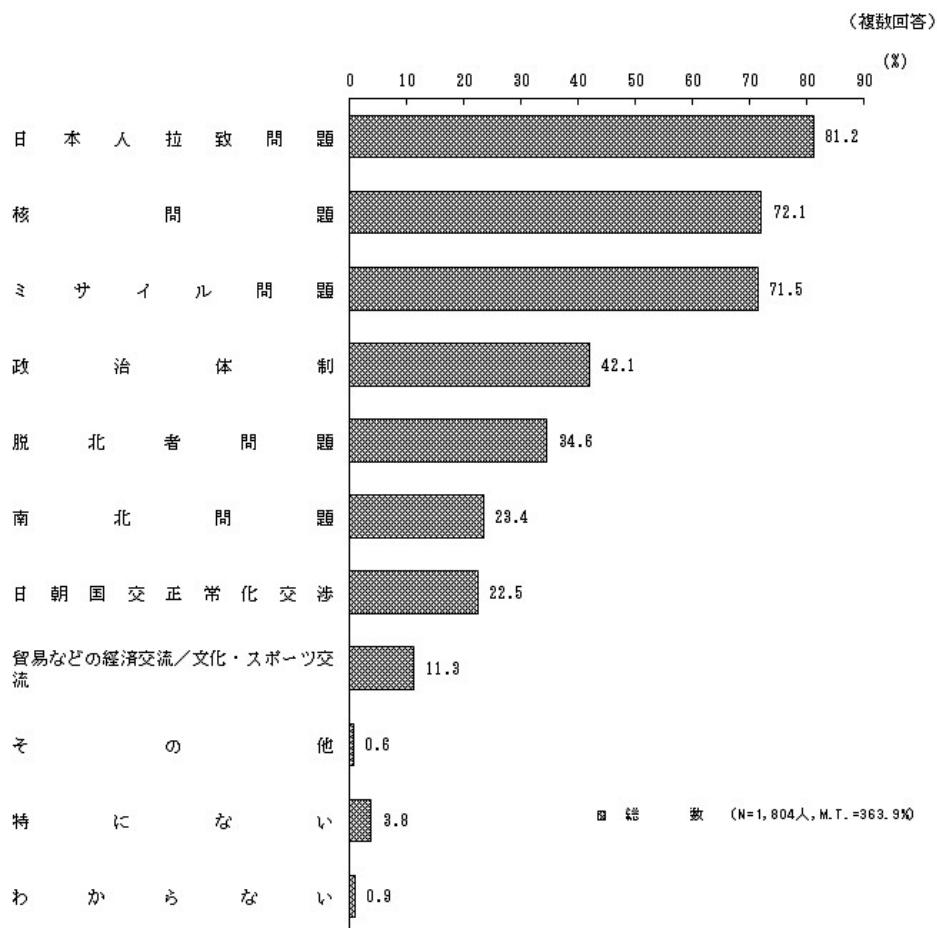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never clearly expressed its position on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t only is Japan's presence and influence in the topic of reunification extremely slim, but North Korea has repeatedly broken its promise about kidnapped Japanese citizens and is developing nuclear weapons, so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time to care about the Korean reunification. Therefore, the Japanese people, as a whole, have little interest in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 matter how friendly the United States or South Korea approaches North Korea, few believe that this will lead to reunification. Through this kind of approach, North Korea probably has hidden intentions and it is likely that the North is the one in control of the situation.

A Japanese Person's Opinion on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While writing this report, I interviewed a Japanese graduate student who studies the Korean Peninsula in Japan. He also predicts that reunification will be difficult, and in order for it to happen, the market economy must be maintained, and more generations must know information about what the world is like outside of North Korea.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 is now making all-out efforts for military expansion, so there will be no move to urge North Korea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図19 北朝鮮への関心事項



Source: <https://survey.gov-online.go.jp/h28/h28-gaiko/zh/z19.html>

1.自己紹介

私は日本人の舘野涼です。現在は高麗大学に留学しています。日本で生まれ、1年間韓国の一般高校に留学した後、高麗大学に正規生として入学しました。「北朝鮮の文化と社会」という授業で、脱北民の方と交流する機会があり、その授業を通して北朝鮮の社会に関心を持つようになりました。日本にいた時は核開発や拉致問題など、北朝鮮に対するネガティブなイメージが強く、とても近寄りがたい国だと考えていましたが、脱北民の方達の話聞いて、北朝鮮にも韓国や日本のように人々の生活があることを意識させられ、北朝鮮の方達が自由に豊かな暮らしができるようになるために、自分は何をすべきか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

2.日本と韓国、北朝鮮の関係

朝鮮戦争終了後、日本は1965年に日韓基本条約を結び、韓国との国交正常化を果たしました。日韓はその後も、政治、経済、安全保障を含むさまざまな分野で、お互いに関係を深めてきました。外務省ホームページによると、国交正常化当時は1年間に約1万人であった両国間の人の往来が、2015年には1日1万人の両国民が行き来しているそうです。

一方、北朝鮮とは未だ国交正常化が成し遂げられていません。2002年9月に小泉純一郎元総理が、日本の総理大臣として歴史上初めて、北朝鮮のトップと会いました。その際に調印された「日朝平壤宣言」では、国交正常化を早期に実現させるために、誠意をもって取り組む決意が表明されましたが、未だ国交正常化が成し遂げられていないどころか、以後日本の首相が北朝鮮の地を踏んだことはありませ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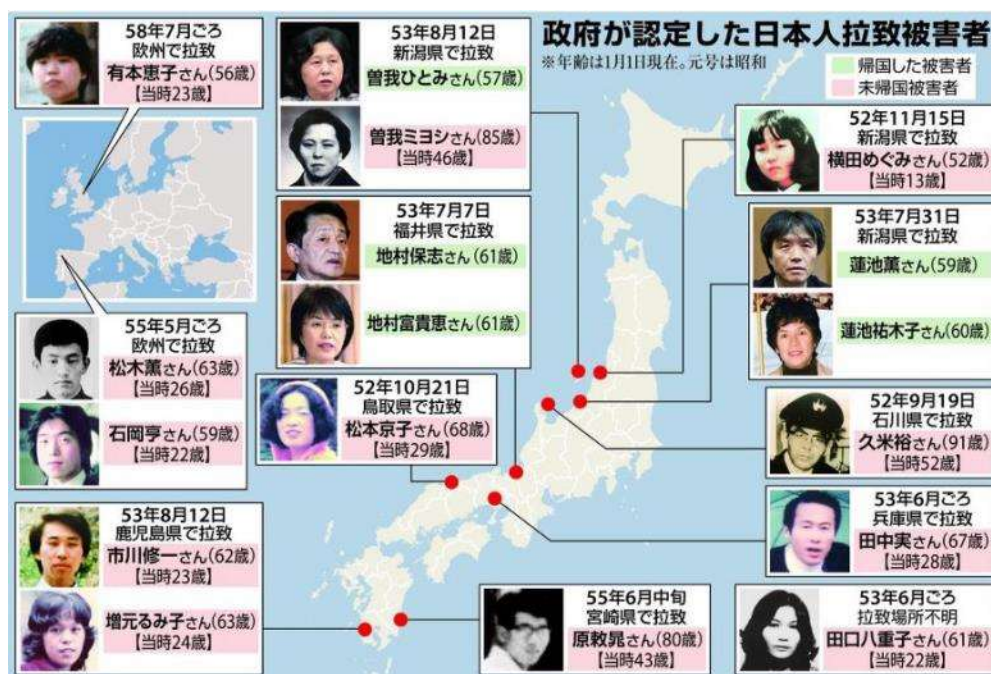
<http://www.hani.co.kr/arti/777781.html>

3.韓国と北朝鮮は統一できるのか？

日本のメディアでは、南北関係のネガティブな側面や出来事が報道される場合が多いです。その理由は南北問題に関して、存在感が薄い日本にとって、インパクトの大きい事件（多くはネガティブな事件）の方がニュースになりやすいためだと考えます。内閣府の統計によると、北朝鮮への関心事項は、日本人拉致問題や核開発やミサイル問題が70%以上を越えるのに対して、南北問題は23%程にしか及んでいません。

そのため、多くの日本人にとって、南北統一はあまり馴染みのないことであり、統一した際の影響を真剣に考える機会はずっと少ないと考えます。特に今の若者は生まれた時から、北朝鮮と韓国の政治体制や対立も確立されている状態しか知らず、以前は1つの国家であったことも知らない人も少なくありません。

もし統一の議論がなされたとしても、多くの日本人の関心を集める拉致問題、安全保障に関する影響など、限られた分野になることが予想されます。また、どのような統一方法によるかによって、日本に及ぼす影響も大きく異なると考えます。



<https://medium.com/@oliverjia1014/the-abduction-issue-north-koreas-systematic-kidnapping-of-japanese-citizens-a48ec873bc62>

4. 韓国と北朝鮮の統一は日本にとって「脅威」か「機会」か？

安全保障

まず南北が統一された際に、日本に大きく影響する分野は安全保障だと考えます。日本には日米安全保障条約を根拠に、米軍基地が多数存在しています。この日米安全保障条約の根拠を見ると、「日本の安全、極東における国際平和及び安全維持のため、アメリカ軍は日本において、施設及び区域を使用することを許される。」とありますが、当時規定された際の明確な対象はソ連や中国などの共産主義国でした。しかし、冷戦が収束していく中、北朝鮮に変わっていき、軍隊を持たない日本にとってもアメリカの軍事力を頼るしかないため、未だ軍事基地が撤去されていません。日本国内では、米軍基地に反対する声も大きいです。特に、日本の米軍基地の約7割は沖縄に集中しており、日本の安全保障に必要なとしても、1箇所に集めるのは差別的だと考える人は少なくないです。

しかし、統一が成し遂げられた際のアメリカと北朝鮮の関係は友好である限り、東アジアの安全保障が安定的になった場合、米軍基地を必要と考える人は減少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米軍基地が多く存在する理由が北朝鮮の核武装や軍事力拡大を視野に入れているため、万が一朝鮮半島で非核化が進み、アメリカと北朝鮮が友好的な関係を築けるのだとすれば、米軍が撤廃する可能性もある。



経済

日韓は経済の分野でも大きな関わりを持っています。外務省の調べによると、韓国にとって、日本は中国、米国に次ぐ第3位の貿易相手国であり、日本にとっても韓国は中国、米国に次ぐ第3位の貿易国です。もし、この経済的な強い繋がりが、南北統一後まで維持されるのであれば、日本にとってはさらに大きなマーケットになることが予想されます。

「もし南北統一したら」の著者である辺真一さんは、豊富な地下資源が埋蔵されている北朝鮮が、日本の資源調達先の多様化を支えると述べています。現在日本は鉄鉱石や石炭を地球の裏側のオーストラリアやブラジルから輸入していますが、資源の調達先が限られている場合、外交問題によって大きく影響しやすい事が予想されます。そのため、少しでも資源の調達先を多様化することによって、リスクを回避できると見えています。

また、現在は日本と北朝鮮の間で行き来が難しい状況ですが、南北統一が成し遂げられることによって、北朝鮮からの観光客が望め、日本人も北朝鮮に足を運ぶことが可能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ます。現在（コロナ以前）は、日本への外国人観光客に占める韓国人観光客の割合は中国に次ぐ第2位で、北朝鮮も同様の割合で日本に訪問してもらえれば、観光業やホテル業などで経済的恩恵を望めると考えます。

5. 南北統一に関する日本政府の考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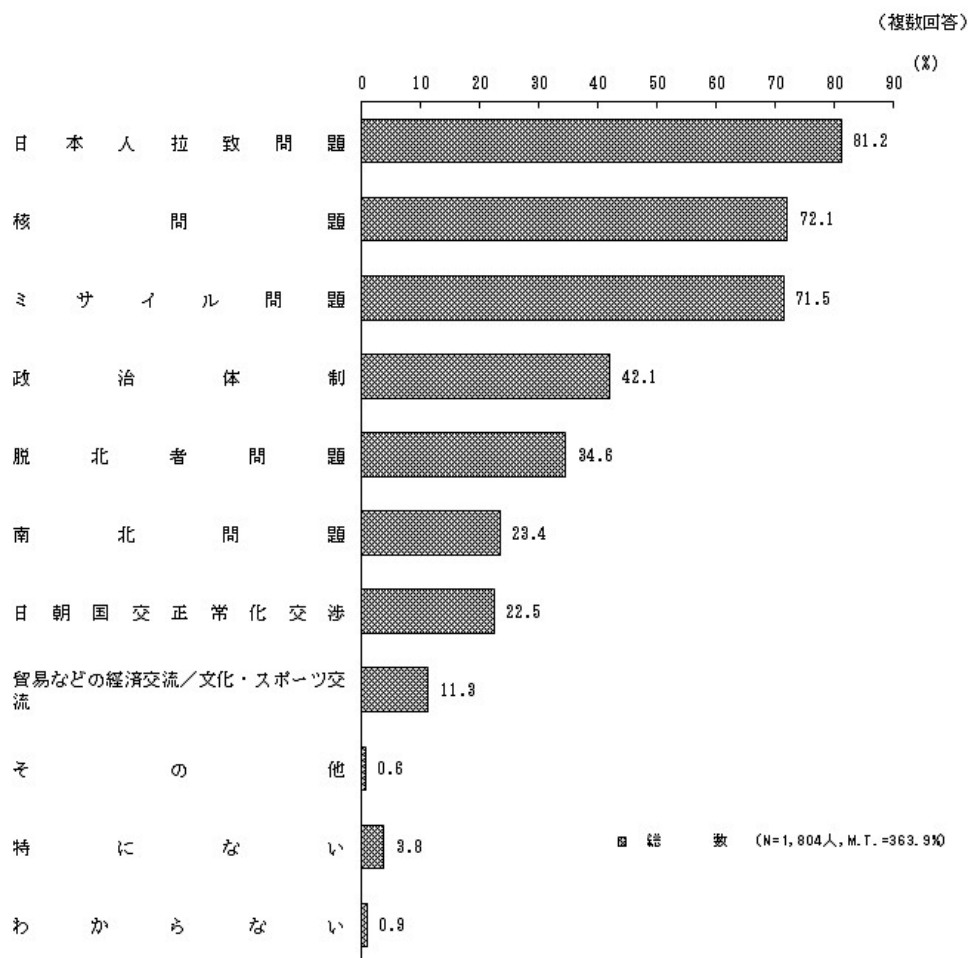
日本政府が明確に南北統一に対する考えを表明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日本の存在感や影響力は極めて薄いだけでなく、北朝鮮との間では拉致問題に関する約束が幾度となく破れてきた上、核開発に力を入れているため、南北統一にまで考えが及ばない事が多いです。そのため、国民全体でも「南北統一」に対する関心度は低く、たとえ北朝鮮にアメリカや韓国が接近したとしても、これが朝鮮半島の統一に繋がるとは考えていないケースが多いです。むしろ、このような接近は北朝鮮側に何か思惑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利用されているだけではないかと疑心暗鬼に陥る確率が高いと考えます。

6. 南北統一に関する日本人学生の考え

この報告書を作成するにあたり、日本で朝鮮半島について研究を進める日本人大学院生にインタビューをしました。彼女自身も南北統一は難しいと考えており、統一が成し遂げられる条件として、市場経済や北朝鮮外の情報を知っている世代が増えることをあげています。

また、日本と北朝鮮の関係性については、現日本政権は軍事拡張をしていく意志が強いため、北朝鮮に対して国交正常化を働きかける動きはないと予想しています。

図19 北朝鮮への関心事項



<https://survey.gov-online.go.jp/h28/h28-gaiko/zh/z19.html>

발표 7 | Presentation 7

독일 | Germany

왜 독일의 통일을 한국의 통일과
비교할 수 없는가?

Why the German reunification cannot be
compared to Korean reunification

Priska Kohnen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현재 남북한은 70년 이상 동안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아직도 먼 이야기 같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올해 통일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성통만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비정부 기구에서 일하는 베를린 시민으로써 독일의 통일을 한반도 통일의 롤 모델로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 뉴스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자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남한에 오기 전에는 그 주제에 대해 아무 정보가 없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다르게 독일은 남북한과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에서 더더욱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 한반도 통일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독일 학교에서 독일 통일에 대해 배웁니다. 그리고 10월 3일 독일 통일의 날을 통해 또는 베를린 벽을 지나면서 독일 통일에 대해 자주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과 비교하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낯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직 학교에서 배우고 미디어에서 들었던 독일 통일에 대한 정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지금 서울에서의 삶과 성통만사에서 배운 정보를 토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통만사가 준비한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한반도 통일과 독일 통일의 차이점을 얘기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질문들에 집중할 것입니다:

북한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체제가 과연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와 합쳐질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가능하다면 남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개인 자유, 생활 방식과 교육을 포기할 생각인가? 또한 김정은이 개인 권리를 보증하는 정치 체제와 합치는 것에 동의를 할 것인가? 그 또한 중요한 정치적 타협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북한이 독재 정치로 운영되는 닫힌 사회이기 때문에 정치적 통일은 복잡하게 느껴지는게 사실입니다. 독재자가 원하는 요소들과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체제를 합치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독일 통일 전의 경우 두 곳의 정치적 체제는 달랐지만 동독의 시민들은 통일을 매우 원했고 변화에 대해 긍정적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많은 남한의 젊은이들이 통일 한반도를 생각할 때 걱정을 몇 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가 매우 크기때문에 서로 맞추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규범과 가치관들 또는 생각들만 보더라도 남북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기계처럼 자랐고 개인

의 생각이나 의견을 갖는게 부적절하다고 배웁니다. 그들은 정부와 나라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질문하면 안 되고 무조건 따라야한다 배웁니다. 돈으로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하고 정치적 부패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로운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려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교실 사진,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이 교실에 걸려있다.

<https://www.studycountry.com/assets/img/guides/north-korea-students.jpg>

어떤 북한 사람들은 전체주의 시스템을 더 선호할 수도 있고 변화를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독일에서도 그런 상황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적 당들과 애국주의적 당들은 아직도 독일 내에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정치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현재 존재한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 세뇌 당한 기성세대는 본인의 생각 방식을 바꾸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시점을 더 깊게 파면 통일된 한반도는 많은 변화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 학생들이 남한의 교육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조차 안됩니다. 반대로 북한 교육 시스템을 남한에 적용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학생이 필요한 교육을 채워주는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거나 남한의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경직된 교육시스템에 대한 성통만사의 보고서 내용

<http://pscore.org/resources/dailylife-north-korea/>

남한의 교육 제도가 우선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북한 아이들과 학생들은 군대와 일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공부에 집중하는 남한 학생들과 다른 생활을 합니다. 남한 주민들은 현재 생활 방식과 자유가 제약될 것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새로운 제도와 북한 사람들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은 쇄국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발달의 차이 또한 큼니다. 북한에서는 아스팔트 길도 희귀하며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같은 개인의 인터넷 사용도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로만 쓰일 수 있습니다. 통일 전 독일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독일에서는 동독은 가족으로부터 '서독 택배'를 받을 수 있었고 서독 주민들 또한 관광이나 가족을 만나러 동독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갈수 있었습니다.



동독은 서독의 택배를 받을 수 있었다

<https://www.spiegel.de/geschichte/ddr-und-westpakete-ein-stueck-deutsch-deutsche-geschichte-a-1287338.html#fotostrecke-195f7f83-0001-0002-0000-000000170731>

또한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고 라디오 채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지역에서 어린이들은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노동이나 군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독의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사회주의를 가르치고 어느 정도 사상을 주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독은 북한만큼 닫혀있지 않았으며 학생들과 주민들이 본인들의 생각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시민교육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 동독 학교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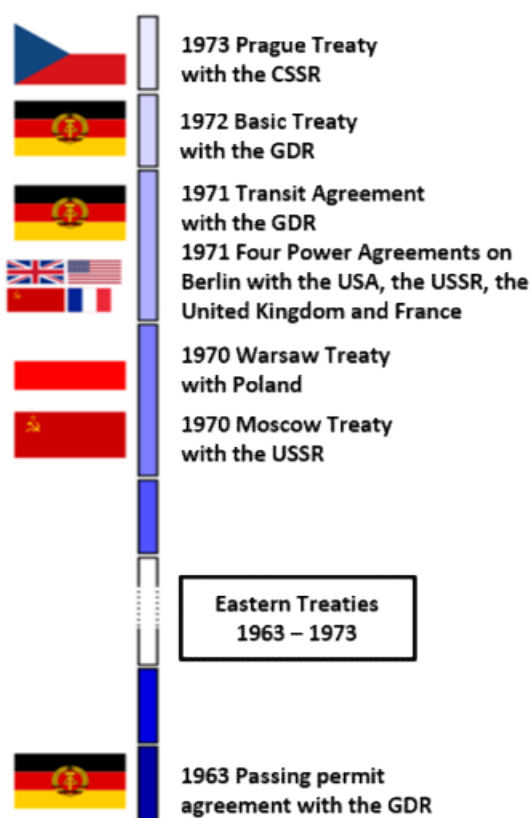
<https://www.mdr.de/zeitreise/schwerpunkte/eure-geschichte/themen/jugend-bildung/schulwesen/schulwesen100.html>



전 동독 공산당 호네커 서기장의 사진이 걸려있는 동독 학교의 교실 모습

<https://www.google.de/amp/s/www.spiegel.de/geschichte/schule-in-der-ddr-a-946445-amp.html>

분단된 독일을 보자면 통일에 대한 갈망에 대해 남북한과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서독은 두 지역의 공존을 지지하고 경제적, 물리적 그리고 사상의 이동이 자유롭기를 원했습니다. 두 지역은 각각의 지역으로 인정 받았으며 소련과 서독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최적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독의 정책은 교환의 기반을 깔아줬고 두 지역의 장벽은 서서히 없어져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독은 성공적인 경제 덕에 자신감이 붙었고 선동을 위한 반공산주의는 더 이상 서독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반공산주의는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당들을 통제하고 억누르기 위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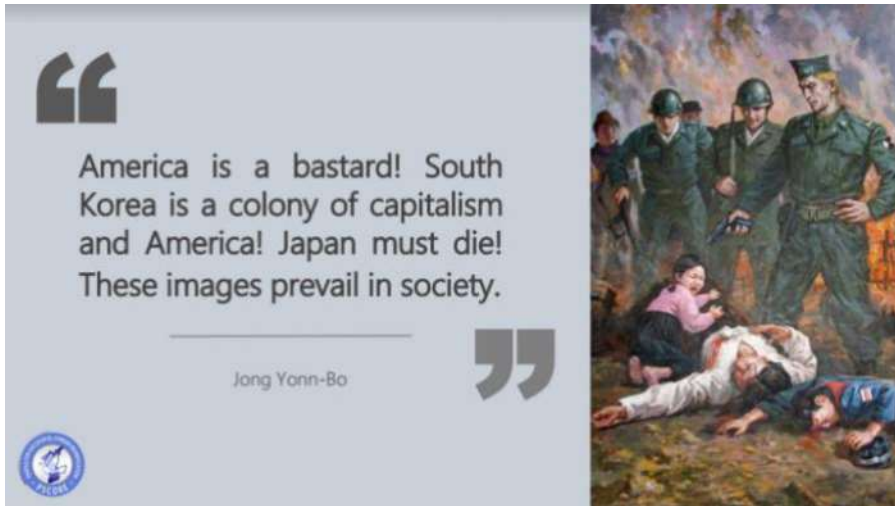


동부 유럽 국가들의 조약 연표

<http://diverseasia.snu.ac.kr/?p=1324>

그러나 남북한은 아직도 서로를 적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뇌를 당합니다. 두 나라의 주민들은 6.25 전쟁의 원인으로 서로를 탓하며 오직 본인의 나라만이 합법적이라고 믿습니다. 이점 외에도 동독은 그 자체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구조적 문제도 있었으며 어마어마한 난민 유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통일에 대한 갈망은 더 강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독일 통일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비슷한 상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의 세뇌교육에 대한 증언

<http://pscore.org/wp-content/uploads/5-1.bmp>

특히 동독은 통일에 대한 갈망이 매우 강하였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서독의 삶이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한반도 통일이 독일 통일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우리는 독립적으로 자라고 질문하고 본인의 생각을 말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항의하고 나라를 변화시키도록 격려됩니다.



동독의 시위모습

<https://www.lpb-bw.de/gruende-mauerfall/>

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영향력과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와 독일의 'Black Lives Matter' 시위만 봐도 내가 독일에 산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법과 규칙을 통치하는 나라에서 사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동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의 최대 시위모습

<https://www.google.de/amp/s/amp.dw.com/de/gr%25C3%25B6%25C3%259Fte-ddr-dem-o-abgesang-am-alexanderplatz/a-51086149>

북한에서 바뀌어야 하는 중요한 점들 중 하나는 주민들이 나라가 본인들의 권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정부에 향해 맞서야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통일과 변화를 전체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부당한 정부에 시위하며 싸운 사람들 덕에 이뤄진 결과라고 봅니다.



공격적인 북한의 선전 포스터

<https://www.newsweek.com/north-korea-targets-us-capitol-latest-propaganda-posters-652207>

하지만 북한은 워낙 세계와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기계로 키워진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뇌를 당하니 이러한 깨달음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통일에 대한 갈망을 키울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 남자 주민들은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남한이 적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세뇌 교육은 10년의 군대 기간 동안 이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아마도 절대 정부와 최고 지도자 김정을 향해 시위를 시

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북한의 변화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감히 시위를 시작조차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정부에 협박을 가한 사람은 감옥에 수감되거나 사형을 당합니다.

만약 김정은이 정치적 타협에 열려있다 해도 체제 자체에는 매우 작은 변화만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완전한 쇄국 정치를 못 이어나가며 주변 국가 외부세계에 교류를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법이 돈으로만 바뀔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며 위력 있는 인물들은 이미 조금이나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합쳐서 보았을 때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변화에 두려워하고 있고 공격력을 이용해서라도 본인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제도는 지도자에 향한 두려움을 기반으로 깔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유로운 정치 체제에 동의를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과 자리를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자랐고 처음부터 세뇌를 당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이끄는 게 유일하게 옳다고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고 고통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미 그를 유일한 지도자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지 못한다면 그들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그만저만하게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로지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지 북한 주민을 고려한 이유는 아닙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국가의 주민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많이 보여져 왔습니다.

그 외에도 독일의 통일은 한 실수 때문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실수는 잘못된 발언이었으며 서독에 제한 없는 통행을 동독에게 즉시 허락한다는 발표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열기로 한 발언으로 이해가 되었으며 발표가 난 저녁 많은 인파들이 몰리면서 서독으로 통과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보초 군인들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쇄국 정치를 매우 중요시하며 본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독일과 한반도의 통일의 공통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상황의 차이들이 매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동독의 주민들보다 더 교육이 안 되어 있고 세뇌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동독이 서독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훨씬 수월 했습니다. 동독이 쇄국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도 크게 역할 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통일은 동북의 경제적 어려움과 동북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갈망이 통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동북 주민들은 베를린 장벽이 열리기를 원했으며 그것을 위해 시위를 열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북한과 동북의 삶은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동북에는 인권이 존재했고 법이 북한만큼 부패되어 있지 않았으며 권력에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점들이 성공적인 독일의 통일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North and South Korea have been divided for more than 70 years now, and reunification is still not in sight. Whereas in Germany, we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of reunification this year. As a Berlin citizen, who works now for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amed PSCORE,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which fights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nowadays, I am often confronted with the German reunification as a role model for a Korean reunification. Before I came to South Korea I barely knew anything about the issues regarding North and South Korean reunification, as I rarely saw them on German news. I think that is because Germany is not an ally of one of the Koreas compared to the US or China. Also with my friends and peers it was never really discussed. Of course we learn about German reunification in school and are reminded of it every 3rd October on German Unity Day or by passing the Berlin Wall, but it never came to my mind to compare it with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So I can only name the facts that we learn in school or hear in the media about German reunification and can compare them with what I have experienced so far during my life in Seoul and what I have learned while working for PSCORE.

Today in this seminar, organized by PSCORE, I want to talk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erman and Korean reunification by focusing on these questions:

Is it even possible to merge the family-run dynasty of North Korea with a democratic South Korea and if so, how much are South Koreans willing to give up in terms of their social lifestyle, education system and general freedom? Would Kim Jong-un really agree to join a political system that guarantees individual rights and is he willing and able to make key political compromises?

A political unification seems rather complicated, since the North is a closed country, run by different families and functions almost like a

clan-society. Therefore merging the political systems needs to be matched with their family interests, which is definitely not an easy task. Compared to Germany, although the political systems were different in both parts, East Germany was still open to changes and at least the citizens strongly desired a unified Germany.

I think, in general, young people in Korea have some concerns when they think about a reunified Korea. Since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re enormous, it would take a lot of time for them to adjust to each other. Just in terms of norms and values or rational thinking, the citizens of North and South Korea have different opinions. In North Korea people are raised like robots and are not allowed to have their own opinion and thoughts. They should never question anything that the government or the state demands from its citizens.



Classroom in North Korea. Pictures of the former Leader and the current Leader on the wall.

<https://www.studycountry.com/assets/img/guides/north-korea-students.jpg>

It is normal that anything can be solved by money and corruption is normal in the country. So, it might be hard for North Koreans to adjust to a free way of living.

Some of them might even prefer the totalitarian system and don't want a change. It is the same as in Germany, where even nowadays unfortunately nationalists and racist parties still exist. So it is highly likely that supporters of Kim Jong-un's political system will still exist. Especially older generations, who have been brainwashed their whole life, might experience difficulties changing their way of thinking.

On a deeper social perspective, a unified Korea comes along with many changes. I can imagine that it would be hard for North Korean students to adapt to South Korea's education system, if it was applied in North Korea. Vice versa, applying the North Korean education system in the South, wouldn't make sense either.



Quote about North Korea producing robots

<http://pscore.org/resources/dailylife-north-korea/>

So, probably a new system needs to be developed or the current one of the South needs adoption, that fits the needs of the students in the whole country. That is because many North Korean children and students can't have proper education due to work and military service. So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m to get used to the education system in South Korea, where a student's day sometimes only consists of studying. South Koreans might feel constrained in their freedom and current way of living, since they also have to adapt to new systems and to people, who lived their whole life sealed off from the rest of the world.

Generally speaking, since North Korea is a closed country,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development is gigantic. In the North asphalted streets are rare and the use of smartphones, computers or their own established internet are only available for political usage.

If this was compared with the divided Germany, those differences were not as enormous as they are for the two Koreas. At least in Germany, the Eastern part was allowed to receive 'Western Packages' from family members and West Germans were able to enter limitly the East as tourists or visit their families.



East Germany receiving 'Western Packages'

<https://www.spiegel.de/geschichte/ddr-und-westpakete-ein-stueck-deutsch-deutsche-geschichte-a-1287338.html#fotostrecke-195f7f83-0001-0002-0000-000000170731>

It was even possible for East Germans to watch West German television or listen to their radio channels. Also, children got proper education in both parts of Germany and child labor or entering the military service for children would never have been an issue. Although it is true that East German schools taught socialism and indoctrinated students in some way, but East Germany just wasn't as closed as North Korea is and so students and citizens still could build their own mind even if they didn't always speak out loud.



School life in East Germany.

Child reading book about civic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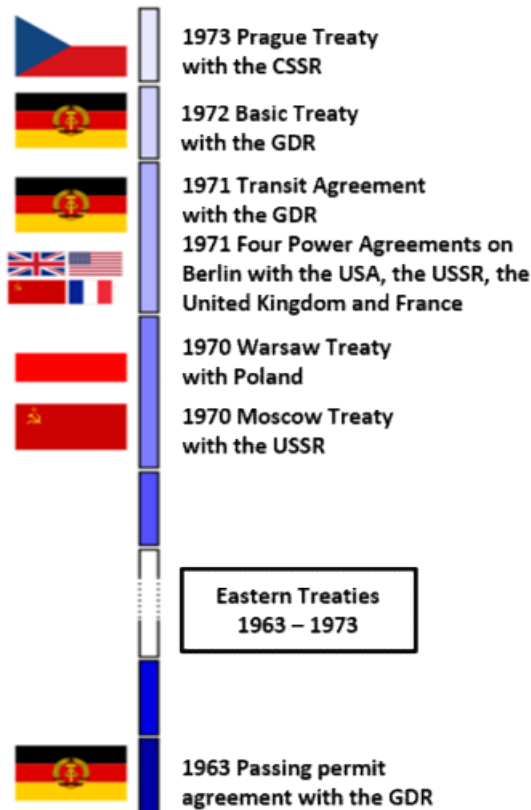
<https://www.mdr.de/zeitreise/schwerpunkte/eure-geschichte/themen/jugend-bildung/schulwesen/schulwesen100.html>



Classroom in East Germany. On the wall picture of Erich Honecker, communist official who, as first secretary of East Germany's Socialist Unity Party of Germany

<https://www.google.de/amp/s/www.spiegel.de/geschichte/schule-in-der-ddr-a-946445-amp.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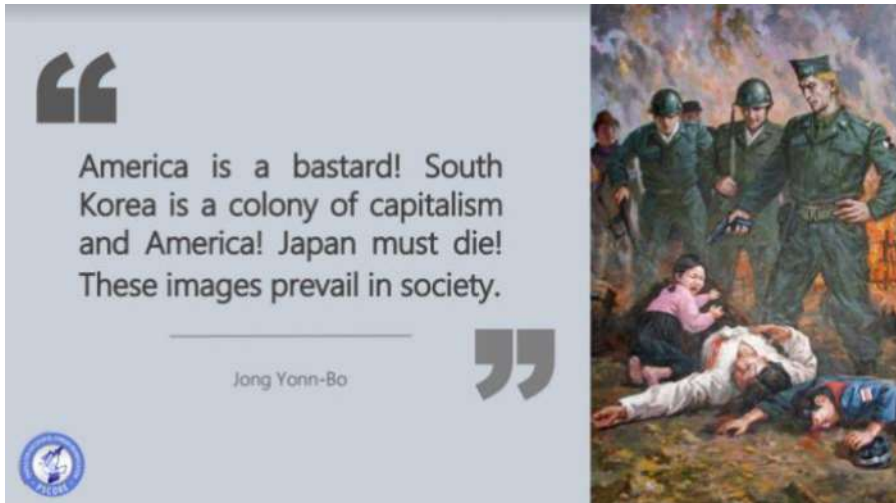
If you look at the parted Germany, it also differs from North and South Korea in terms of the willingness for an actual reunification. West Germany supported a coexistence of both states with a free transfer of economics, citizens and opinions. Also, both states were acknowledged as an individual stat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West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was constantly optimized. This so-called Eastern Policy led to basic prerequisites for an exchange of interests and barriers between the states were gradually removed. On top of that, anti-communism was not needed anymore as a means for propaganda in West Germany due to more self-esteem because of a successful social market economy. Anti-communism was not abused as a means to suppress and discipline opposition parties or individuals.



Timeline Eastern Treaties

<http://diverseasia.snu.ac.kr/?p=1324>

The two Koreas however still see each other as enemies and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brainwashed since birth. Both of them see themselves as the only legitimate state which blame the other one for starting the Korean War. Other than that, East Germany was weakened in itself. It had structural problems, showed issues due to enormous outflows of refugees and had a deep desire for freedom and reunification. All these facts played a role in German reunification and can't be found in North Korea.



Quote about North Korea brainwashing its citizens

<http://pscore.org/wp-content/uploads/5-1.bmp>

Especially the fact that in East Germany the desire for reunification was very strong and the citizens knew that life in Western Germany was better than in the East, the Korean reunification can't be compared to the German one. In Germany we grow up to be independent, to question everything, to speak our mind and over all to protest and make a change in the country.



Protests in East Germany

<https://www.lpb-bw.de/gruende-mauerfall/>

On top of that, it is amazing what kind of power and effect young people have; just thinking about the climate change and recent BLM protests occurring in Germany, I am grateful to live there. I could never imagine living in a country where rules and laws can be interpreted however the government feels like.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change is that the citizens need to realize that the country they live in clearly violates human rights. Change can only be established if the people go against the government, because the government will never change. When I think about German reunification or changes in general, it's mostly accomplished by the citizens who protest and fight against the unjust government.



Biggest protest in Berlin at Alexanderplatz

<https://www.google.de/amp/s/amp.dw.com/de/gr%25C3%25B6%25C3%259Fte-ddr-dem-o-abgesang-am-alexanderplatz/a-51086149>

But since North Korea is so sealed off from the world and people are brainwashed since birth, it is hard for them to realize that they are not raised as individuals but instead as robots. Therefore they can never develop the desire for a unified country and especially male citizens are taught as soon as they enter the military service that South Korea is the enemy.



Aggressive North Korean propaganda

<https://www.newsweek.com/north-korea-targets-us-capitol-latest-propaganda-posters-652207>

This brainwashing continues for almost ten years during their whole military service. Due to this, North Koreans would probably never start protesting against their government and their Supreme Leader Kim Jong-un. At least none of the majority citizens would fight for a change in their country. On top of that, it is highly possible that North Koreans don't even dare to try to protest, since every person, who might function as a threat to the state and its political system, just gets locked up in prison or gets executed.

If Kim Jong-un was really open for political compromises, at least there would be already small changes in the political system. For example: North Korea, not being a closed country anymore or at least allowing more traffic to the rest of the world or its neighboring countries. Also,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and laws can be adjusted by money and powerful people could have changed a little

already. This just shows that Supreme Leader Kim Jong-un is scared of changes and he needs to distinguish himself by aggressive measures to prove his power. The whole system functions only on fear towards the Supreme Leader. He could possibly never agree to a political system, where people actually speak their minds, as he would lose the feeling of power and leadership. Since Kim also grew up in this country, he has also been brainwashed and has been taught that the way he leads the country is the only right way to do so. On top of that, he lives a good life and doesn't suffer at all, because the citizens just follow him as the one and only Supreme Leader. If people don't see the need for a change they mostly don't agree to make changes. Furthermore, the North Korean economy is still more or less stable only because Kim wants to stay in power and control of the country and not because of the citizens, since he showed many times that he clearly doesn't care about them.

Other than that, German reunification also happened as a result of a mistakenly outspoken announcement, that East Germany would allow unlimited passage to West Germany starting immediately. This statement was widely interpreted as a decision to open the Berlin Wall and that evening huge crowds demanded to pass into West Berlin, whereupon the unprepared guards let them go. Something like this would definitely not be possible in North Korea, since Kim Jong-un highly values being a sealed off country in order to suppress and restrict its citizens to make them follow his leadership.

Generally speaking, I think, it is very hard to find similarities between German and Korean reunification, since the differences in East Germany and North Korea are huge. North Koreans are more undereducated and brainwashed than the citizens of East Germany were. Therefore, it was far easier for East Germans to adapt to the living standards of West Germany, which was also more manageable since East Germany wasn't a sealed off country. Also German

reunification was mostly possible due to the collapsed economy of East Germany and its citizens, willing to protest for opening the Berlin Wall and reunifying the two Germanies. Apart from that the whole life in North Korea and East Germany is different, since in East Germany human rights existed and the law wasn't corrupt and changeable by powerful and rich people. I think these were the key factors and requirements for a successful German reunification.



PSCORE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PSCORE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www.pscore.org

www.facebook.com/pscorekorea

www.instagram.com/pscorekorea